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0 경상남도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선작>

작품명: 내가 바로 백범이다!

작가명: 이동욱

기획의도: 이 작품은 저의 실화를 다룬 것입니다. 저는 백혈병에 걸려 투병해 오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워 온지 1년 6개월 우연히 진주 소싸움대회에 구경가게 되고, 그곳에서 한소를 보고 투지와 투혼에 감탄했습니다. 920kg의 범이는 1100kg의 상대소를 이기는가하면 울장에 처받혀 네다리가 하늘로 찢기 들려 자빠져 버리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다시일어나 상대소를 찾고서 다시 싸워 이기는 걸 보고 정말이지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놉시스

주제: 삶은 싸움이다. 자신과 싸우고 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운다, 그래서 싸움 끝에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울일이 없어지면 죽는 것이다.

소재: 싸움소 백범과 병을 이겨낸 소싸움꾼 동욱

등장인물: 동욱(주인공), 백범(싸움소), 민영(동욱 여자친구), 아버지, 엄마, 남동생, 노인, 의사, 해설자1,2, 우주들..

줄거리: *주인공은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일류기업에 취업해서 출세가도로 달리고 결혼을 앞둔 시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혈액암에 걸림

*1년 6개월이라는 투병과정 속에 죽음을 생각하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짐을 생각하는 힘든 과정을 겪음

*어느 정도 몸도 회복되고 고통도 덜해 질 무렵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이때까지 쌓아왔던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음

*우연히 소싸움 경기장에서 백범이라는 싸움소를 보고 투지와 투혼에 감탄하고 노인에게서 귀감있는 말을 들음

*부모님 허락 받고서 백범을 키움

*동욱이는 백범을 항상 서로의 친구이자 자식처럼 여김

*백범은 첫경기에서 기술은 없어도 끈기와 투지로서 승리

*매번 갓은 고비에도 백범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여 관중석과 해설자마저도 감탄과 탄복함

*백범이가 신장병에 걸림

*동욱이는 백범이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고 어느 날 매일 찾아오는 백범 무덤 옆에 누움

*눈을 뜨니 병원 나의 마지막 결승전을 치르는데 백범의 투지와 투혼 생각하면서 이겨 내려고 노력함

<취업준비>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다. 모니터를 한편으로 가리고서 기도를 한다. 구나가가 절실할 때 찾는 하나님이 있다. 더욱이 오늘 같은 날...‘하나님 저에게 은총과 기회를, 하나님 저에게 은총과 기회를’ 계속되는 간절한 바람과 동시에 오른손 검지는 살포시 마우스를 누르고 나머지 왼쪽 손은 살며시 손바닥을 오무룬다.

“귀하는 유능한 인재임을 사료되어 저희 에너지관리공사에서도 채용을 고려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합격을 통보함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귀하의 무궁한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창문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고시원 문을 박차고 현관 출입문 앞에 섰다. 호주머니에서 꾸게꾸게한 THIS 담배갑을 꺼내 몇 개 남지 않은 개피에서 한 개피를 입에 문다

‘하늘 참 맑다. 참 지랄같이 좋다’

눈물이 난다 또 다시 한 개피를 입에 물고 한점 구름도 없는 하늘에다 금방 퍼져 사라져 가는 구름을 만들려고 애를 써본다. 씨발 욕이 목구멍까지 넘어오는 걸 참는다. 서류통과부터 필기, 인적성, 논술 그리고 면접... 하늘을 쳐다보고서 한참을 뉘두리를 한다.

‘귀하의 무궁한 건강과 건승’ 이렇게 줄담배를 피게 하는게 무슨 무궁한 건강,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에 연거푸 피식 웃음이 나온다. 벌써 2년째다. 취업난이 역대 최고라더니 가슴에 돌맹이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하다

<6개월 후>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기업에 들어오셨다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접시를 깨트리는 것은 너그러운 용서를 해도 접시에 먼지가 묻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회사내에 모든분들이 여러분의 멘토임을 알고 겸손과 겸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또한 신입사원의 열정과 패기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축사를 마치고 연단에서 인사를 하자 손뼉 소리가 대강당을 떠나가도록 메아리가 쳤다

신입사원 입사식



신입사원 입사식이 2월 13일 경영진과 본사직원, 신입사원 및 신입사원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어서 서해발전 가족임을 표시하는 뺏지를 임직원분들이 달아주시겠습니까.”

“이동욱군 축하하네”

관리처장이라고 적힌 분이 온화하게 말을 건네며 왼쪽 정장 깃에 뺏지를 달고 악수를 건네줬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사원의 기념사진을 찍고서 연회장으로 옮겨서 신입사원 및 가족분들과 사장님 및 임직원들과 다과회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질로 보니 사회자분도 진행이 모두 마치자 흐뭇한지 씨익 웃으면서 자리를 뜬다.

“우리 아들 장하데이”

“그럼 누구 아들인데 엄마 이것 먹어봐 맛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저절로 주먹이 쥐어진다.

<스키장에서>

“민영아! 이제 낙엽은 어느 정도 되니깐 S자 연습해보자”

“아이 S자 타는 거는 무서운데”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 시선을 멀리보고 살짝 보드를 돌린다고 생각만 해, 그럼 저절로 S자 돌아간다.”

중급자 코스 정상에서 부추를 보드에 끼우고 쪼이면서 말한다.

“잘 봐, 오빠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 봐, 돌때 시선을 멀리보고 살짝 오른발의 무게 중심을 앞에서 뒤로 둔다고 해봐”

“알았어, 해볼게”

민영이가 눈바닥을 손바닥으로 짚고 일어서서 보드를 엉거주춤 타고서 내려온다. S자를 도전해 보려는 찰나에 “쿵”하고 넘어진다.

“괜찮아, 안다쳤어”

“응, 괜찮아, 어렵네! 그래도 오늘은 이거 마스트 할꺼다 ㅎㅎ”

민영이는 몇 번을 넘어지면서 리프트 승강장 앞까지 간신히 내려온다.

“오빠 나 운동신경 조금은 있는 것 같애, 한번만 더 타면 이제 S자도 좀 될것 같은데”

“엉덩방아 많이 찢는데 안 아파... 좀 쉬었다 탈까?”

“아니, 괜찮아! 오빠 한번만 더 타고 쉬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제 재미가 붙었나보다. 리프트를 타고서 올라간다.

전광판에서 민영이와 내가 보낸 영상들이 나오고 글들이 나온다.

“민영아!

너와 함께하면 지옥도 천국이고

너와 함께하면 대화가 없어도 행복이고

너와 함께하면 슬픈영화도 사랑영화 된다.

나랑 결혼해줄래?”

나는 호주머니 깊숙에서 반지를 꺼내 민영이 손가락에 끼운다. 몇주 전에 리프트측에다 프로프즈를 신청했었다.

<5개월후>

“이상으로 고압 및 저압 바이패스 계통은 기동, 정지 시 기동시간 단축 및 급격한

부하 변동 시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복수기로 방출하여 보일러 압력을 조절하며,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증기 온도와 터빈 금속온도의 차를 신속하게 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터빈열응력을 최소화 합니다. 또한, 부하특성 향상과 보일러 및 터빈의 분리 독립운전, 고형입자에 의한 터빈블레이드 침식 방지, 계통 과도현상에 대한 안정성 향상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상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마치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이과장, 준비 많이 했군, 이번 품질 경영대회에서 우승도 바라볼 수 있겠어”

“고맙습니다. 처장님”

옆에 있던 팀장님이 말씀하신다.

“이과장 준비한다고 좀 피곤해 보여!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지 그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장한 탓일까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잠깐 잠깐씩 이마와 목덜미를 째아냈을 뿐인데 손수건이 헌건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땀이 난다.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한다.

“오빠 PT는 잘했어”

“딱 마치고 나니깐 전화를 하네, 윗분들이 잘 했다고 했어”

“잘했어! 오빠는 풍요로운 사람같아! 오빠하는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일찍 승진도 하고 덤으로 예쁜 아가씨가 바로 응원전화도 하고 결혼도 할꺼잖아 히히”

“그러게 우리는 짜끔 잘 어울리나봐”

“뭐야 짜끔이야 오빠 내일 뭐하는 날인지 잊지 않았지, 잘 생긴 오빠 얼굴에 뭐라도 나면 안 되니깐 오늘은 꼭 쉬어요”

“그래, 널 9시에 집 앞으로 갈게”

“이게 다야”

“우리 민영이 사랑해”

남들이 들을까봐 구석진 대서 대답한다.

<웨딩 촬영장>

“자 웃으세요, 신랑분은 더 환하게”

“더 밀착, 서로 입술에 뽀뽀”

“찰칵”

사진작가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면서 온갖 어려운 포즈를 취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힘들다 이번이 몇 번째야. 그래도 참아야지 결혼 두 번할 것 아니잖아!’



<산악 자전거 동호회>

“동욱아, 왜 그래? 힘들어 보인다야?”

“그러게요 요 며칠 강행군을 했더니 몸이 무겁네요”

“힘내고 인생 뭐 있어! 너무 출세가도 달릴려고 하지 말고 여유롭게 살아!! 안그럼, 한방에 폭 가는 수가 있어 히히 농담이고 쉬엄쉬엄 따라와!”

산악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가늘고 길게 사는 게 목표인 2살위 태관형이다.

머리가 어지렸다. 언젠가 폭탄주를 많이 마셨을 때처럼 뭔가가 빙빙 돈다

“쿵”

내몸이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버린다.

<병원에서>

침상에 누워있다. 왼쪽 팔에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다.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얼마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직도 하얀 까운을 입은 누나가 가끔씩 꿈속에 나타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런가 회사에서 받는 정기검사에서 주사바늘만 봐도 머리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봉사점수를 채우기 위해선 헌혈을 해야 하는데 딱 1번밖에 하지 못했다.

의사샘과 두명이 옆에 섰다. 레지던트들인 것 같다.

“이동욱씨, 혈액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좋지 않아요. 혈소판 수치도 그렇구요. 먼저 혈소판을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분께는 연락 드렸다고 하니 금방 오실 겁니다.”

의사샘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빈혈이 온 것 뿐인 것 같은데 멍하니 바라 보면서 무담담한 것처럼 물었다

“병이 뭔데요”

나같은 환자들을 많이 다루어 본 것처럼 능숙하게 의사샘이 차분히 대답한다.

“우선 S병원에다 연락 해 놓았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시면 그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병이 뭐냐구요?”

짜증이 섞인 말투로 물었다. 뭔가 심상치 않다. 여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니, 안된다니....

“골수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백혈병인 것 같아요”

백혈병이라... 앞이 멍해진다. 예전에 TV나 영화를 보면 종종 나오는 뻔한 병이 아닌가, 연인이 사랑을 하다 한명이 걸려 죽어가는 병.... TV에서 생명나누기 헌혈운동에서 머리털도 하나도 없고 얼굴에 핏기도 전혀 없는 어린애들.

가슴한쪽이 짙 막혀 온다. 점점 그 답답함이 어지럽고 혼돈으로 바뀌더니, 마침내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고 불안하고 심장이 쿵당쿵당 뛴다. 하늘이 무너지고 역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커튼 사이를 살짝 밀치고 태관형이 들어온다

“쫄또 형, 의사가 내보고 백혈병이라고 하는데 돌파리 의사일끼라, 집에가서 몇일 쉬면 나을긴데, 나 집에 갈란다.”

표준말을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한큐에 무너지다. 흥분하거나 당황하면 으레 말에 사투리가 나와 버린다.

“알고 있는 연락처가 제수씨 밖에 없어서 제수씨한테 연락했는데 너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미안하다.”

“씨발, 형은 왜 민영한테 연락해”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형한테 화가 난 것이 아니다. 이 병에 걸린 내몸이 원망스럽고 한순간에 세상이 지랄 같아지고 원망스럽다.

민영이가 들어오는데 벌써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빨갧게 퉁퉁 부어있다. 서로 말없이 침묵만 흐를 뿐이다.

<병원 생활>

S병원 응급실이다. 큰 주사기 바늘들이 담겨져 있는 카트를 끌고서 여자의사와 남자 보조원이 들어왔다.

“뒤로 누우시고요. 엉덩이 뼈속에 있는 골수를 채취하는 거라 마취를 할꺼예요”
하면서 엉덩이까지 바지를 내리더니 엉덩이 뼈 주변 살을 소독약으로 여러번 문댄다. 차갑다.

“아파요, 조금만 참으세요”

눈을 찔끔 감았다. 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다. 지금같은 순간 더욱 절실하다.

“몸에 힘 빼셔요, 다리에 힘 주시면 바늘이 잘 안 들어가요, 편안하게 계셔요”
말이 편안하게지 편안하게 대냐고 마취를 하고서 뼈속에 주사바늘을 찌른다.
여자의사가 끙끙댄다. 몇 번을 찔렀는지 모른다. 갑자기 뼈속에서 뭔가가 빨려 나간다. 이게 골수인가 기분 한번 묘하고 더럽다.

“선생님, 다했어요”

“아뇨, 서, 너게 더 해야 합니다”

뭐야 한번하면 되는거 아니었어, 또다시 눈을 찔끔 감고서 이제는 절실하게 위로의 주문을 외워본다.

‘하쿠나마타타폴레폴레...하쿠나마타타폴레폴레..하쿠나마타타폴레폴레...’

30여분이 흘렀다. 아프고 나른하다.

“다른 사람보다 뼈가 단단해서 골수 검사하기가 힘들었어요, 많이 아프셨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긴 하다. 뼈가 굵어서 그런지 한번도 뼈를 다쳐 기부스를 해 본적도 없고 주변에서도 통뼈로 통했으니.....

“뼈에 자극을 줬기 때문에 출혈이 심할수 있으니깐 앞으로 4시간 정도는 가만히 누워 계세요”

“4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있어라구요?”

의사가 씨익 웃는다. 그러나 비웃음이 아니라 동정어린 웃음이라고 해야 하나, 나중에 느낀거지만 이게 병마의 싸움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표현인 것을....“여기서는 항암제를 못 맞아요. 병실이 나는데로 이동할꺼예요.”

커튼을 걷고서 간호사가 말한다.

주변을 둘러본다. 수혈하는 사람, 산소마스트를 낀 사람, 이마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사람 등 애처롭다. 다시 눈을 찔끔 감는다. 얼마간 잠이 들었는지 모른다. 눈

을 뜨니 엄마가 내손을 꼭 쥐고 있다. 뒤에는 아버지, 동생, 민영이가 서 있다. 민영이가 부모님께 연락을 했나보다. 사실, 나는 부모님께 전화조차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영아, 잘 했다. 내 대신 전화해 줘서’

<급성 백혈병 진단>

보호자 면회조차 시간이 제한된 11층 6인실로 된 무균실로 옮겨졌다. 여기서는 세균이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 보호자조차도 마스크와 가운을 입어야 하고 면회도 1명씩 밖에 되지 않는다.

다소 툭툭해 보이는 50대 중반의 의사와 또 한명이 섰다.

“골수 검사 중간결과가 나왔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자세한 유전자 검사는 다음주에 나올꺼구요. 백혈구 정상 수치가 7천에서 1만개정도이고 사망에 이르는 수치가 13만 이상인데 이동욱씨는 16만개가 넘어요, 한시가 급하니깐 지금 바로 가슴에다 중심정맥관(히크만카테터)시술을 하고서 항암 주사를 맞을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잘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의사를 말없이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의사가 나가기 무섭게 누군가(환자 운반하는 사람)가 침상 바퀴 고정대를 풀고서 어디론가로 끌고 간다. 위를 쳐다보니 형광등들이 지나간다. 복도를 지날 때 항상 내가 형광등을 지나갔는데 오늘은 아니다. 형광등들이 지나간다. 그래서일까 그 불빛들이 무섭게 뇌리에 스쳐든다.

혈관 조영이라고 적힌 자동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애워싼다. 눈위로 불빛이 매우 밝게 비친다. 아니, 너무도 눈부시다. 이제 아무 생각도 안난다. 이게 꾸넬일까? 꼭 소가 도축장에 끌려가는 느낌이다.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은 눈을 최대한 찔끗 감고서 주문을 외우던가 숫자를 세어 보는 것 뿐이다. 눈가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수개의 주름이 일그러졌는데도 여전히 망막속으로 불빛이 들어온다. 애워싼 누구 중 한명이 내 맘을 아는지 얼굴을 천으로 가린다.

“국소 마취 할 겁니다. 또 다시 가슴이 차갑다. 소독약 냄새가 코속에서 진동을 한다.”

<사촌누나의 응원메시지>

정신도 혼미하고 힘도 없는데도 잠을 이룰수가 없다. 몸속에서 두편으로 나뉜 군대가 폭탄과 총탄을 퍼부으며 전쟁을 벌인지 3일째다. 행거에 항암제라고 쓰여진 큰 병과 3개의 꼬마병과 비닐팩이 걸려져 있고 관을 통해 내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해 보지만 한참을 잔것 같았는데도 시계 바늘을 쳐다보면 별반 움직인게 없다.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절실히 바라는 갈망내지는 영원일 뿐인거다.

“메세지 왔다”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왔다는 꼬마애의 목소리가 담긴 멘트가 들린다. 겨우 휴대폰 폴더를 열었다.

“옥아! 많이 힘들지

누나가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니깐 잘 될꺼야

지금은 힘들지만 골이 깊은 만큼 산이 높다고 하잖아

지금 이순간이 더 큰 너를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하자“

어렸을 때 누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날 업고 이리저리 하염없이 돌아 다녔던 사촌 누나이다. 내가 취업했을 때 누나자신이 취업한 것 마냥 좋아하고 결혼한다니 친동생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축하해주던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촌누나이다. 그런 누나가 내가 병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앞이 선하다.

“뚝...뚝...뚝...”

전화를 하면 목이 메여 말이 안나올까봐 메시지를 보내려고 자판을 눌러보지만 자꾸만 잘못 눌러지고 그것조차 힘이 든다. 그러다 이내 포기해버린다.

<1차 관해유도>

“우리 아들 많이 야위어졌네, 아프면 말해”

“그래도 평소 운동을 꾸준히 했던 게 있어 팔에 알통이 있어...글구 몸 근육은 작아져도 마음에 근육은 커진것 같애 히히”

살결이 약해져서 겨우 수건으로 등을 미는 엄마를 뒤로 보고 대답한다. 2주사이에 15kg이 빠져 버렸다. 이제 겨우 혼자 일어서서 다니기는 해도 한쪽손은 가슴에 넣은 중심 정맥관 때문에 혼자서 씻거나 뭘 하려고 할때는 한쪽손은 관을 잡느라 한손을 잃어버린 것 같다. 면회시간 중 20분이 엄마가 목욕시켜준다고 훌쩍 지나가버렸다. 개운하다, 처음이다 입원하고 나서 목욕을 해본지가.....

“밖에 민영이가 와 있으니깐 엄마 나가고 민영이 들어오라고 할게”

“응 그래”

엄마는 대기실에서 생활한다. 엄마의 물골도 말이 아니다. 자식 걱정에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잠도 못 잤을 것이다.

“오빠 안녕, 저번 주보다 엄청 건강해 보이는데”

“그래 ㅎㅎ”

대학교에서 디자인 강의와 프로젝트로 바쁠텐데 매주 마다 빠짐없이 학교가 있는 전주에서 올라온다.

“엄마가 그러는데 회사사람들이 많이 다녀갔다고 하던데...무균실이라 혹시나 병균을 옮길까봐서 안들어오고 대기실에 있다 아버지와 엄마와 얘기만 하다 갔다네”

“응 나도 알아 친척분들도 많이 왔던데, 면회시간에 엄마랑 내만 오빠를 독차지하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 잘했지”

민영이에게 종이 한장을 건넨다.

“오빠, 나한테 사랑편지 썼어”

“ㅎㅎ 그게 아니고 회사분들한테 쓴건데...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메일 좀 보내줄래 아이디랑 비번은 적어왔어, 회사에서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치이! 알았어 다음에는 나한테 꼭 편지 쓰야돼 알았지”

“....”

씨익 웃기만 했다. 유쾌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민영이가 사랑스럽다.

‘안녕하세요 ^ ^’

발전처에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친구를 만나 지금 투병중인 이동욱입니다. 지금은 1차 항암 치료를 끝내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서야 겨우 정신이 맑아지네요. 그래서 모든 지인분들께 갑자기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혀 주변에서 피가나고 잇몸이 약간 험고 감기 몸살기운이 있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 정도 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백혈병이라고 하니 어릴적에 TV에서 본 머리카락이 빠진 어린아이가 불치병을 힘겨워하며 싸워나가는 영상만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좋은 백혈구가 너무 많아 상대적으로 헤모글로빈과 혈소판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혈관이 터질 수 있다고 하니 그냥 멍멍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있으면 고칠 수 있나요?” 물으니 일단은 한달동안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다음주에 결혼식인데 치료 받다가 결혼하고 나서 다시 치료 받으면 안되냐고 대수롭지 않게 물으니 선생님이 진지하게 결혼은 좀 미루시고 2주일 정도는 마

음을 곳곳이 먹어야 한다는 말만 건네면서 나갔습니다.

저녁에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달려오셨고 다음날 바로 무균실로 들어가서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항암치료를 받으니까 3일만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항암제에 의해 백혈구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물만 먹는데도 하루에 구토를 7~8번씩은 해댄 것 같습니다.

하루마다 내진오면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5만개가 깨졌다, 4만개가 깨졌다, 하면서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백혈구가 300개고 수혈을 받고 항생제를 맞으면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응원메시지를 보내 주셨더군요.

“두려운 것은 그리고 나약해진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죽음을 두려움으로 움츠려 살기보다는 희망을 쫓아 하루를 곳곳히 건디며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한 삶 유지하시고 저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 후 인사 드리겠습니다.

<단꿈을 꾸다>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을 잊지 못해 ♪
Oh- oh- oh-
좋은 사람인진 모르겠어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야 ♪
선부른 판단일지라도 웬지 사랑일 것만 같아 ♪
Oh- oh- oh-

내가 택했던 그녀를 난 믿겠어 ♪
내가 택했던 그 밤을 ♪
내 생 최고의 사랑일지 미친 사랑의 시작일지 ♪
해봐야 아는 게 사랑이지 이제 우리 시작할까 ♪
Oh- oh- oh-

“윤종신 노래는 약간 찼득하고 쫘득한 맛이 있어”
“그래 맞아 가수는 뭐니뭐니해도 얼굴보다는 실력인데 말야”
“건배”

“카아! 시원하다.”

호프집이다. 친구들과 차가운 생맥주를 마시며 담배도 연신 기분 좋게 피워댄다.

“내가 좋아하는 브로클린 너마저다”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껌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워 ♪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울지 않을 수 있어 ♪
온기가 필요했잖아 이제는 지친 마음을 쉬어 ♪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 ♪

우리 좋았던 날들의 기억을 설탕에 켜켜이 묻어 ♪
언젠가 문득 너무 힘들 때면 꺼내어 볼 수 있게 ♪
그때는 좋았었잖아 지금은 뭐가 또 달라졌지 ♪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 ♪
슬그머니 눈을 뜬다. 잠시 꿈을 꾸었던 모양이다. 눈가엔 이슬방울이 촉촉이 젖어서 흐른다.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다시 노래가 흘러 나온다.

안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 해도 ♪
더 이상 날 비참하게 하지 말아요 ♪
잡는 척이라면은 여기까지만 ♪

제발 내 마음 설레이게 자꾸만 바라보게 하지 말아요 ♪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스쳐지나갈 미련인 걸 알아요 ♪
아무리 사랑한다 말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
그 때 그 맘이 부른다고 다시 오나요 ♪

<골수검사 후 퇴원>

건너편 스마일맨이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하는 일은 행거를 끌고서 붉은펜을 들고 벽에 걸려있는 달력에다 어제 날짜를 X자로 표시하는 것이다. 꼭 군대에 갓 입대한 신병이 훈련소 탈출을 위해 하루 하루를 지워 나가는 모양과 같다. 7월달에 X 표시가 12개째이다. 여기 입원실에 6명의 환자들이 누워있지만 서로가 고통의 시간이다 보니 별로 얘기가 없다.

“새벽까지 잠을 못자는 것 같던데”

“아! 네 의사샘이 오늘 골수검사하고 내일이나 상황보고 퇴원 할수 있다네요”

어제는 통 잠을 못 잤다. 매일 새벽에 두, 세번을 깨긴 했지만 어제는 눈을 억지로 감아도 30분을 채 못잔 것 같다. 드디어 34일간의 병원생활을 마치고 집에 갈수 있다는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사실은 큰 주사바늘들이 다시 엉덩이뼈를 뚫어야 한다는 생각이 무섭게 뇌리에 스쳐서이다.

“잘됐네, 힘든 순간 다 넘기고 미리 축하해, 집에 가서 잘 먹고서 힘내고”

“네~”

스마일맨은 내가 집에 간다는 생각에 잠을 못잔 것으로 알고서 말한다. 입이 커서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이다. 원래는 얼굴에 살이 많고 주름도 많았는데 얼굴살이 속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입이 커서 웃는 얼굴처럼 보여서 간호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처음 퇴원 후>

“이것도 한번만 더 떠 먹어봐라”

“알았어, 열심히 먹고 있으니깐 재촉하지 마세요.”

아들의 기운을 북돋아 보려고 아버지는 연신 장어, 낙지, 백숙, 곰탕 등 몸에 좋다는 것들을 싱싱하게 살리고 멀리 수산시장이나 마트에서 사 오시고 엄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보낸다. 그렇게 고생하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고 끼니때마다 억지로 현미밥에다 장어꼬리를 얹고 입안을 단고서 조목조목 씹어 보지만 이내 화장실로 달려 갈 수밖에 없다.

“우웁~ 우웁~웁”

“토닥, 토닥...툭..툭...”

“괜찮다. 아프다, 그만 두드리고 나가라”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구토뎀에 화장실로 달려오면 엄마도 어김없이 등뒤에서 등을 두드리고 쓰다듬는다.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영양분들을 세면기에 모조리 뱉어내 버려 미안한 맘이 들지만 도리어 엄마한테 짜증을 내 버린다.

퇴원한지 1주일이 넘었다. 잘 먹지 못하는 것은 퇴원해서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또 일주일만 있음 병원에 가야한다. 그래도 못 먹고 못 자도 집시계는 병원시계보다 10배는 빠른 것 같다.

“동욱아! 네비에 면사무소까지 5분정도 남았다고 하거든...”

“성균아! 그래 그럼 면사무소 가기 직전에 좌측으로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골목길로 조금만 들어오면 빨간 벽돌에 기와집이야, 나갈게”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전화다. 취업하면 보험하나 들어줄게 장난삼아 했던 얘기가 취업하니 1년 정도를 나를 쫓아다니자 겨우 제일 싼걸로 하나 들었었다.

“야 20만원이 누구이름이나 비싸다야!”

“종신보험 중에 20만원이면 싼 건데”

“안돼, 안돼, 그럼 가입안할래 니가 알아서 제일 싼 걸로 넣어줘”

그렇게 든 것이 매월 10만원 정도내는 종신보험인데 친구도 내 성아에 못이겨 울며 겨자먹기로 약관에 거의 암만 혜택 보는 걸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

늘 진단금 8천만원에 입원비가 하루에 20만원씩 나오는 큰 혜택을 본 것이다.

<한자이름을 개명하다>

“아드님이 동짓달 스물여섯날에 태어났네요, 가급적이면 잘때는 동쪽내지는 남쪽을 방향으로 머리를 두시라고 하시고, 몸이 추울때 태어났으니깐 속옷은 빨강이나 보라 등 밝은 색을 입으라고 하세요.”

“선생님, 자식님이 몸이 안 좋아예, 앞으로 중요한 수술도 있는데, 애비된 도리로써 어떻게 건강도 찾고 잘 될수 있는 방도가 없을까예?”

“사주에는 음양오행이 다 들어있어 좋은데...한자이름 동녘동(東)과 빛날욱(旭)이 서로 맞지 않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욱자를 旭(욱)에서 획수가 맞는 昱(욱)으로 바꿔 보는 게 좋겠는데요. 그리고 금은 방에 가서 은수저를 하나사서 수저 뒤에다 바꾼 한자이름을 쓰세요. 밥을 먹거나 국을 먹을때 다람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초조하고 걱정된 심정에 이리저리 알아보고 유명하다는 철학관을 찾아 부산까지 갔셨단다.

이름을 개명하기 위해 아버지와 같이 법원안 개명·호적 이라고 적힌 데스크앞에 섰다.

“개명하실거면 본인 신분증 주시고, 1층에 가서 등록우표를 사 가지고 오시고 여기도 사유서를 쓰세요. 판사님이 판단해 보시고 2주에서 3주내로 등기로 집으로 통보 할겁니다.”

직원이 볼펜과 사유서라고 적힌 종이를 건네면서 말한다. 아버지는 볼펜을 쥐고서 적는다.

사유서

존경하는 판사님.

제자식님이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독한 항암제로 인해 제대로 밥도 못먹고 잠도 제대로 못잡니다. 앞으로도 많은 치료과정이 있을텐데 애비된 마음으로써 미신이나 나마 유명하다는 철학관을 찾았는데 한자이름을 바꾸면 생명운이 좋아질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애비마음을 생각해서 개명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차 관해 실패>

“완전 관해가 다 됐어야 하는데...”

모니터를 보던 50대 중반의 의사가 다소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망설이면서 말한다.
뭔가가 잘못 되었음을 직감 할수 있다.

“퇴원할 때 골수 검사한 정밀검사가 나왔는데 좋지않은 백혈구가 5%미만으로 떨어져야 다음 치료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애원하듯 묻는다.

“다시 관해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덜컥 가슴이 무너진다. 다시 악몽같은 날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입술 끝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목구멍이 말라오는 것 같다. 잠시 침묵을 깨고 아버지가 묻는다.

“의사선생님, 저번에 백혈구가 많이 깨지면 콩팥에 무리를 줄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괜찮습니까?”

“네 다행히 콩팥쪽은 괜찮은 것 같네요”

처음 항암치료를 받을때 콩팥이 손상 갈수도 있고 또한 사망을 해도 병원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명을 요구했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몹시도 불안했던 모양이다.

“원래는 더 독한 항암제를 투여했어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 몸이 견디내지 못할 것 같아서 한단계 낮은 항암제를 투여했더니 제대로 관해가 안된 것 같네요. 이동욱씨!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굳게 먹고 치료해 봅시다.”

“.....”

고개가 떨구어진다.

‘더 독한 항암제라 그럼 이번은 더 힘들겠네, 씨발!’

속으로 욕이 나온다.

<1차 관해 재도전>

먼저번 관해기간과 이번주를 더하니 한달 반을 여기 8평 정도 아니, 내공간은 1평 반 정도이지만 무균실 공간이 이젠 집안처럼 다소 친숙해진다. 처음 관해유도 실패 후 또 다시 항암제를 맞은지 1주일째이다. 이제는 죽은 고사하고 물조차 삼키기 힘들 정도로 입몸과 입안이 헐어버렸다.

“간호사님, 이거 맞으면 밥 안먹어도 되는거죠?”

“네, 그렇긴 한데 웬만하면 죽이라도 먹을 수 있음 그게 더 좋은데 환자분이 통 아

무것도 먹지 못해 달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토가 더 심해질거예요."
간호사가 하얗게 우유처럼 생긴 큰 비닐팩을 행거에 달면서 얘기한다.

‘학교 다닐때 밥 먹지 않고 이거 맞으면서 공부했음 사법고시도 패스 할 수 있었
겠네’

잠시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하루가 갈수록 행거에 메달리는 약통들이 많아져서 이
젠 화장실에 끌고 가기도 버겁다.

<청도 할배의 죽음>

"젊은 양반 호박고구마인데 하나 먹어 볼라우"

"먹고 싶은데 입안이 헐어서 못 먹을 같아요"

아까 면회 시간에 며느리가 삶아서 가지고 온 모양이다. 원래는 음식물 반입이 금
지되어 있는데 몰래 가지고 온 것 같다. 고구마 중에도 호박고구마가 맛있고 엄청
좋아하는데 할배가 겨우겨우 목구멍으로 고구마를 넘기는 것만 봐도 부럽다.

"다음에 다 나으면 청도에 놀러와 내가 싸움소를 키워 이름이 장풍인데 청도에서
우승도 한번 했지 허허"

"아 그래요 장풍이라... 무협지에 나오는 이름이네요"

"옥뿔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몰라. 청도에 오면 우리 장풍이 구경시켜 줄꺼니
게"

"네 그래요! 꼭 한번 보고 싶네요"

“후다닥, 후다닥”

새벽이다. 간호사가 급하게 무균실 밖으로 뛰어 나간다.

“CPR, 암병동 11층 71호...CPR, 암병동 11층 71호...CPR, 11층 71호”

스피커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 곧 의사 몇 명이 카운을 걸치면서 급하게 들어온다.

“철킅, 철킅”

건너편이다. 작은 다리미처럼 생긴 것을 가슴에다 누르는 것이 어렴풋이 보인다. 저
긴 청도에 사는 할배자리인데 청도에는 소싸움이 유명하다면서 자신이 기르는 싸움
소가 대회에서 우승도 했다며 무균실에서 소 얘기 밖에 안하던 노인이다.

‘괜찮겠지’

반대로 등을 돌리고서 찢끔 눈을 감아 버린다.

<죽음을 생각하다>

눈을 뜨고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니 건너편 청도 할배자리가 비어져 있다. 벌써 이방에서만 두명째다

‘죽으면 어디로 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아씨, 평소 좋은 일 좀 많이 할 걸...’

허무하다.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려고 발부동을 치는게...

창가에 섰다. 통유리창을 훑는다. 건물사이로 아침 햇살이 나뭇잎을 비추고 그것들은 흔들흔들 거리며 푸르름을 뿜낸다.

‘나무잎이 저토록 푸릇었나’

사람들이 길가를 지나다닌다.

‘이제부터 한참 더워지겠네’

열이 40℃까지 치솟는 날이 허다하다. 뼈마디가 쭈시고 때로는 뼈가 늘어났다 줄어 들었다 하고 심한 날은 갈라지는 것 같다. 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일이라고는 양팔에 피를 뽑아 가는 것 뿐이다. 그리고는 배양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뿐 결과나 원인을 들려 준적이 없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열이 나니깐 팔에다 피를 뽑는다. 이제는 온통 팔에 퍼런 멍들이 들어 혈관조차 잘 잡히지 않는다.

“아씨, 이번이 몇 번째예요, 잘 좀 하세요”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만 할게요”

간호사가 끄끖댄다. 겨우 주사바늘로 피를 뽑아간다.

눈을 감고서 기도한다.

‘하나님, 제발 내일은 눈을 뜨게 하지 말아 주세요...’

<헤어짐을 준비하다>

이제는 민영이를 잡고 있음 안될 것 같다. 이제는 놓아 줘야만 할 것 같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말도 안되는 논리로 화도 내고, 전화도 문자도 씹곤 했다. 가끔은 면회 오면 고래고래 고함도 치고 짜증도 부렸다.

“너 이제 오지마, 너는 병원이 좋냐, 매주마다 오게, 주말에 친구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그래”

“.....”

민영이는 하나하나 묵묵히 듣고만 있을 뿐이다.

면회시간이 훌쩍 지나서 간호사가 연두색 편지를 건넨다.

까궁!! 나 민영이^^

놀랐지? 가끔 급당황시키는 일이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더 좋은거와 잘하려고 노력할게 ㅎㅎ

처음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시각만

늘어가는거 충분히 이해돼.

다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내 입장에선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는게 맞을꺼야.

오빠 힘든시간 이겨내는 만큼 어느 누구보다 더

행복해야 할꺼야.

서로의 행복이란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힘들고 아플땐 서로 나누고 의지하고

기쁠땐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기에 가능할거라 생각해.

난 오빠에게 상처 안주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지만...ㅎㅎ

긍정적인 맘으로 이번 치료 잘 받고 퇴원해서 좋은데

구경가자 맛있는것도 몽땅 먹구 우리오빠 잘 할수 있으니깐

조금만 참고 얼른 퇴원해서 봐요^.^ “사랑해 동옥럽”

내가 더많이

민영이가 -민영럽

<1주일 후>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ㅎㅎ

오빠 굿모닝 잘 잤어?

오빠와 축구보고 여기서 잤는데 어머니가 명당자리를

나에게 줘서 편히 잘수 있었어 나름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곳을 침범할수 없더라고 이렇게

어머니를 포함한 세분이 이곳을 자리잡고 있는데

아들에 대한 열성이 대단해 보였어.

그중 어머니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열성이

대단하다며 다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다 같지만 얼마만큼 자기자신을

희생하는 정도로 감탄을 한다는 거지.

어머니로부터 환자들마다 상태, 가족간을 대략 얘기

들으면서 나 비록 오빠에게 부끄럽지만

우리 동옥오빠 아프고 힘들지만 따뜻한 가족이 있어

다행이고, 말 안듣고 밉지만 민영이가 있어 다행이겠

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것이 불행 중 행복이라고
다른 환자들보다는 ‘행복하구나’ 하고 생각했음 좋겠어.
그리고 누구보다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있었기에
치료도 잘 받은 것 같애. 그 과정이 아프고 그 고통을
때론 감추려는 오빠의 통증을 다 느낄 순 없지만
민영이가 오빠를 헤아리는 마음은 더없이 커졌기에
그것만은 약속할게. 다 이해하도록
오늘도 우리 동욱집 핫팅!! 나의 사랑 이동욱
오빠 사랑해!! 축구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는데
괜히 말해서 얹잖아 할까봐 노심초사 하다보니 같이있는
내내 침묵만 흘렀네. 그래도 같이 있으니깐 참 좋아^.^
-광복절날 민영립

어제 저녁 면회시간에 민영이가 들어 오길래 등을 돌리고 축구경기만 쳐다만 봤었다. 버스시간을 놓쳐 비좁고 불편한 의자에서 잤던 모양이다 그게 명당자리라니...
엄마보고도 더 이상 민영이 못 오게 하라고 했지만 서로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니
간 언제부터인가 호흡이 척척 맞는 모녀시간이 되어버렸다.
오늘은 편지와 함께 녹색바탕의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을 간호사를 통해 건네주고 내려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치고 힘든 상황이 오면 뒤로 물러선다. 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강하다. 평균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평균적인 사람인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나의 잠재력과 비교한다. 나는 평균적 인간이 아니다. 나는 힘든 상황을 승리의 전주곡으로 생각한다.

어린아이는 실제 걷기까지 얼마나 많이 걷기 연습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린아이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지 않는가?」

“우웁~웁”

침대 옆 휴지통에다 구토를 한다. 다시 책을 집어 들고 읽는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결과에 집중한다. 내가 바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해도 개의치 않겠다. 내가 결과에 집중하면서 그 과정을 계속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운동선수는 훈련의 고통을 즐기지 않는다. 운동선수는 훈련을 완수했다는 결과를 즐긴다. 어미 매는 무서워서 떠는 새끼 매를 등지에서 꺼내와 벼랑 아래로 떨어뜨린다. 날기를 배우는 고통은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니다. 하지만 어린 매가 하늘을 향해 솟구칠수 있을때 그 고통은 순식간에 잊혀진다.

뱃전을 강하게 때리는 폭풍우를 두려움에 떨면서 바라보는 선원은 엉뚱한 해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명하고 노련한 선장은 그의 시선을 등대에 고정시킨다. 그는 자신의 배를 특정한 장소로 직접 인도함으로써 불편함의 시간을 줄일 줄 안다. 등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에 시선을 고정시킴으로써 단 한 순간의 낙담도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 나의 빛, 나의 항구, 나의 미래가 시야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앞으로 나는 나의 밝은 미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겠다. 나는 나의 미래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앞을 내다본다. 나는 계속 전진 할수 있다.

나는 이성보다 믿음이 더 훌륭한 인도자라고 생각한다. 이성엔 한계가 있지만 믿음엔 한계가 없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활에서 그런 기적을 기대한다.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믿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다. 이러한 믿음의 보상은 내가 믿는 미래를 보게 해주는 것이다. 나는 피곤함과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 나는 결과에 집중한다. 나는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책장을 넘기는 가운데 성공을 위한 일곱 번째 결단이라는 페이지를 읽고 또 읽을수록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가슴을 절여왔다. 수십번을 읽고 또 읽는다 그리고 다시 중얼거린다. 토시하나 안 틀리고 외울 정도로...

<신선한 감동>

병원 생활이라는데 아플때는 사경을 헤맨다고 정신이 없지만 좀 괜찮아지면 지루하기 짝이 없다. 그래도 가장 초조해지고 긴장되는 순간은 의사가 내진보러 오는 시간이다. 들어오는 발자국소리, 얼굴표정 하나하나에도 신경이 쓰인다. 뭐가 안 좋아 조직검사를 해 봐야 한다니, 수술을 하자니... 정말이지 알면 반박이라도 할텐데 도저히 모르니깐 두렵고 무서워도 따를 수밖에 없다.

'아씨,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나 될 걸...'

집안에 의사, 검사, 국회의원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게 실감이 난다. 병원에서는 의사의 말 한마디가 하늘이고 신인 것이다.

맞은편 의령할배 자리 머리위로 '금식'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여져 있다. 여기병원은 유독 경상도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오늘 CT내지는 MRI를 찍는 모양이다. 아님 더 힘든 검사일수도 있고... 뭔가를 먹어 보려고 노력해도 몸에서 안받아줘 탈이지만 뭐 검사가 그리 많은지 검사때마다 물조차 못 마시게 한다. 날이 갈수록 병원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불평 불만은 늘어가는게 당연지사인 것 같다.

"어르신, 오늘 뭐 검사 받는데요"

"복부쪽에 이상이 있다고 CT 한번 찍어 보자데"

조금 있으니깐 주사 바늘을 꽂으려고 간호사가 들어온다. 병원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한번도 간호사가 내팔에 피를 뽑거나 주사바늘(아텡터)을 달 때 쳐다 본적이 없다. 최대한 반대편으로 고개를 제쳐 버린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다시 한번 찔러볼게요"

"간호사님, 고생이 많다, 혈관 찾기가 쉽지 않아 내가 미안하네"

주사바늘이 커서 혈관에 잘 안 꽂이나 보다. 그런데 똑같은 광경인데 나는 간호사 보고 아프다고 잘 좀 하라고 화를 버럭 냈는데 의령할배는 도리어 간호사 보고 당신이 미안하단다. 신선한 감동이다.

<1년 후썸>

항암제 합병증으로 간, 비장에 감염치료를 6개월 정도하고 흉부쪽에 종양이 있다고 흉부수술까지 했다. 다행히 염증으로 판단하긴 했지만... 요양하러 집에 내려온지 5 일째이다. 또 가을이다. 민영이가 또 엽서 한 장을 놓고 갔다.

울보 똥옥오빠 ^ ^

풍선 예쁘지?

풍성한 한가위와 잘 어울릴것 같아 골랐어.

오빠맘은 누구보다 풍성하고 밝은 추석 만들어요~"

어떻게? 즐겁고 신나게 생활하기!!!

오늘 강연회 들은거 잘한것 같아

어떠한 해결을 다 제시해준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노력해야 한다는거야

이제 "내맘 알지?" 라기보단

"내가 오빠 더 사랑하는거 알지?" 라고

표현하는거더라구.

힘들땐 힘들다고, 기쁠땐 기쁘다고 말이야

담주부터 만나서 더 많이 수다떨고

더 많이 표현하며 보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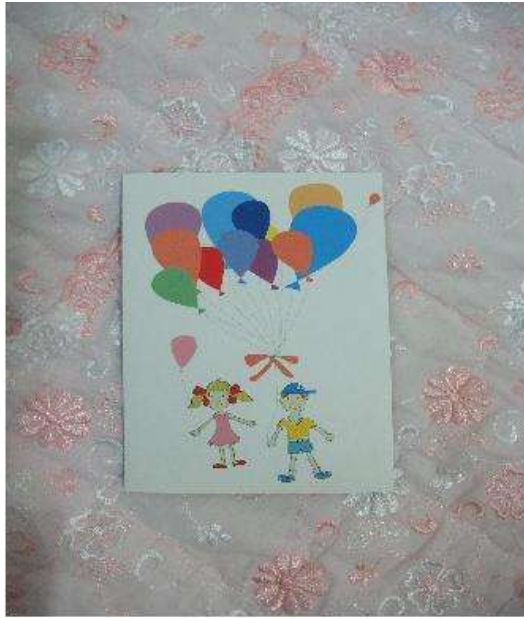
눈물 똑하고 즐겁게 보내고 있어.

그럼 민영이가 금새 오니깐

-한가위 몇일 앞둔 민영이가-

*추석선물 대신 올해는 카드로 대처 ㅋㅋ

예쁘게 봐 주세요~ 사랑해♥



학교 프로젝트도 그만두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백혈병에 관련된 강연회를 들으려 다니는 모양이다.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다. 그래서 그런가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아 한가위 선물을 못사나 보다.

‘민영이 계좌로 몰래 돈을 좀 넣어 줘야겠다.’

<드디어 입원생활을 끝내다>

"이동욱씨!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골수검사 결과 아주 양호하고 좋네요. 이제부터는 한달에 한번씩 검사받고 외래진료 보러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연거푸 고개를 숙여 의사에게 인사를 한다.

'얼마동안이었던가, 수없는 골수검사, 항암치료 게다가 수술과 골수이식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긴 장정을 달려왔던 것이다. 비록 힘도 없고 기운도 없지만 의사의 말 한마디가 금방이라도 하늘을 날수도 있을 것만 같다.

<일원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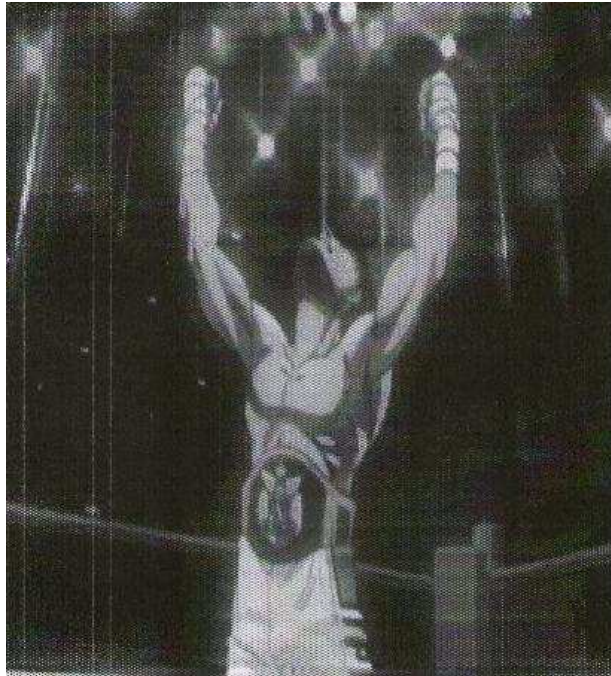
"아부지, 서울에서 땅값이 제일 싼데가 어딘지 압니까?"

"글세, 어딘데?"

"바로 여긴 기라 일원동"

"여기 강남이라든데 여기 땅값 비쌀텐데"

"에이, 아버지도 글자가 일원이라고 동전 중에 제일 작은 일원"



일원역이다. 서로 마주보며 웃는다. 아버지랑 마주보고 웃어본지가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지하철 승강장에 서니 이중창에 시가 한편 쓰여져 있다.

귀를 씻었다

-강윤순

강가에 나가 귀를 씻었다.

소라 껍질 같은 귀가

강둑 위에 떨어졌다.

꿇속에서 기어나오는

굵히고 찢기고 퍼렇게 멎든 말들이

소나무 사이로 걸어든다.

가지는 꺾이지 않았다.

바람 따라서 흔들리기만 했다.

바람은 내 귀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고 있었다.

꿇 속에서 술향기가 났다.

뭔지 모르겠지만 시가 참 마음에 든다. 특히 꿇속에서 술향기가 났다는 말이...참 좋다.

<김씨표류기를 보다>

집에 내려온지 보름이 되어가고 있다. 다소 기운만 없을뿐 아프지 않으니깐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일상이 변하지 않는 벽지를 보는 것처럼 조금씩 무료해지고 지루해진다. 회사의 배려 덕택에 휴직을 연장했지만 앞으로 제대로 다시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무엇인가를 해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다. 머리맡에 읽다가 만 책을 다시 펼친다. 눈은 글을 따라 내려가지만 통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내 손을 놓아 버린다. 이번엔 컴퓨터에 앉아 이리저리 블러그를 끄적끄적 대 본다. 네이버에 진주개천예술제를 알리는 문구가 띄어져 있다. 클릭해보니 진주개천예술제때 가장행렬,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실크 박람회, 궁도대회, 민속소싸움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전에 개천예술제때 강변 고수부지에 먹거리 장터밖에 안가 봤는데 이것저것 많은 행사를 하네’

화면창을 닫고서 다시 밀려오는 무료함에 하품을 하면서

‘영화나 한편 다운받아볼까’

검색창에 영화라는 글자를 쳐본다.

‘김씨 표류기... 제목 그대로 뻔한 무인도 내용 아냐...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어 배우가 나름 감칠 맛나게 연기하는 정재영이네... 영화 평점도 좋고...’

영화를 다운받고서 본다

『내용의 줄거리는 대충 이랬다. 자살시도가 실패로 끝나 한강의 밤섬에 불시착한 남자. 죽는 것도 쉽지 않자 일단 섬에서 살아보기로 한다. 모래사장에 쓴 HELP가 HELLO로 바뀌고 무인도 야생의 삶도 살아볼 만하다고 느낄 무렵. 익명의 쪽지가 담긴 와인병을 발견하고 그의 삶은 알 수 없는 희망으로 설레기 시작한다. 자신의 좁고 어두운 방이 온 지구이자 세상인 여자. 흠피 관리, 하루 만보 달리기... 그녀만의 생활리듬도 있다. 유일한 취미인 달사진 찍기에 열중하던 어느 날. 저 멀리 한강의 섬에서 낚선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게 리플을 달아주기로 하는 그녀. 3년 만에 자신의 방을 벗어나 무서운 속도로 그를 향해 달려간다는....

남자 김씨에게 자장면은 '삶의 반성'이자 '목표'다. 우연히 발견한 짜파게티 봉지를 보며 그동안 자장면을 홀대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것은 지독한 설사에 밀으므로는 연신 뿌직이면서도 위로는 사투비아의 달콤함에 눈물 흘리던 장면, 일종의 모순이다. 죽기 위해 찾아온 한강이 그에게 살 자리(밤섬)를 내준다. 그리고는 굶어죽기 딱 좋게 생긴 이 암담한 무인도에서 자장면을 먹고 싶다는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해주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즐거움, 달콤함, 하찮게 여겼던 자장면 한그릇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으면서 남자 김씨는 자장면의 그 소중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 직접 농사 지을 것을 결심한다. 거기엔 짜파게티 봉지에서 발견한 '분말스프'라는 "가능

성"이 있었다. 자신이 '면'만 만들 수 있다면 한낱 "가능성"일 뿐인 이 '분말스프'는 가능성을 넘어선 '성취'가 될 수 있었다. 이 가능성에 의한 동기부여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의욕을 불려 일으킬 뿐 아니라 더러운 똥은 씨앗을 품고 있을지 모를 값진 종자를 보게 하고 거름으로 쓸 좋은 똥을 싸기 위해 건강해지려 노력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여자가 김씨에게 자장면은 그녀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관심'이자 '선물'이다. 인터넷 속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늘 남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만한 사진들을 모으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관심을 받기에 있는 남자 김씨에게 보냈다가 반송되어온 불어터진 자장면 덕에 매일 건조한 라면을 부셔 먹던 그녀는 실로 오랜만에 촉촉한 면을 먹을 수 있었고 희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남자 김씨에게 자장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었고 여자 김씨에게 자장면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었으며 동시에 둘 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여운도 있고 재미있네...”

묘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솔직히 자장면이라는 것은 대다수에게 하찮은 목표이지만 그 누구에게는 자장면이라는 것이 꿈과 희망이 되고 그걸 만들고 먹기 위해 아주 미비한 가능성에 도전해서 값진 종자를 얻고 농사를 지어가는 과정이 여운과 감동이 전해져 온다. 다시 보고 싶어 또 다시 처음으로 화면을 돌린다.

<이마트 전광판을 보고>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아부지랑 엄마랑 진주 이마트 갈땐데 바람이나 쐬려 간다고 생각하고 같이 갈래”
“별로 안가고 싶다”

소파에 맥없이 누워있는 내가 안쓰러운지 엄마까지 보챈다. 어쨌든 몸을 움직여야 기운도 나는게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래 사람 많으면 그냥 차에 앉아 있으면 되지, 집에서 송장처럼 폭 쓰러져 있음 뭐 할땐데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야 힘이 난다고 의사쌤도 안그라더나.”

‘아씨 그냥 내버려 두면 안되나’ 궁시령대다 할수 없이 생활 필수품 1호인 모자와 마스크를 꺼내 들고서 차에 올랐다.

진주까지는 30여분 거리이다. 차도 옆으로 이제 단풍이 서서히 물들어 간다. 사람들에게는 단풍이 붉게 노랗게 물 들는게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허나, 실제로 나무에게는 광합성 부족으로 인해 나뭇잎을 떼어내어 살아가려는 생존방식인 것이다. 그런 나무가 안쓰럽기도 하고 질긴 생명력에 대견하기도 하다. 나무는 생각이 있다면 무슨 의미로 살아갈까, 무슨 내가 철학자 된 듯 피식 웃음이 나온다.

“어허, 엄마가 100km도 놓고 달릴줄도 알아 간덩이가 많이 커졌네”

“처음에는 큰차들 땀에 쫓았는데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던데”

아들이 칭찬을 해주니 기분이 좋은지 흐뭇해 한다. 2년전에 면허증을 따고서 빨간 조그마한 차를 갖고 싶어하는 눈치길래 빨간 모닝을 사줬었다.

차를 길가에 대고 아버지와 엄마는 이마트에 들어간지 20여분이 된 것 같다. 지루하다, 노래는 안틀어 주고 진행자가 웬 수다만 해대는지 라디오 버튼을 금적금적 대본다. 짜증이 난다. 삶이 무기력하고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짜증이 난다 신경과민일까?, 항암제 휴유증일까?

횡단보도 건너편 보건소 위에 전광판을 멀거 뭐니 쳐다본다.

개천예술제를 홍보하는 화면들을 이어 부리부리한 소들이 뿔을 맞대고 소싸움하는 장면이 지나간다. 그리고 보니 진주에서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실제로 소싸움을 본 적이 없다. 진주소싸움도 청도소싸움 만큼이나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아버지와 엄마가 이마트에서 나온다.

“아버지는 소싸움 본적 있어예”

“전에 천수대교 밑에 있는 둔치에서 소싸움하는 거 잠깐 본적 있는데 와 소싸움 보고 싶나”

“전에 누가 진주도 전국에서 소싸움이 유명하다고 하던데 진주 근처에 살면서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서예”

“이번 주말에 민영이 내려 온다고 했다가 그럼 같이 가보는게 어떻노, 옷 따뜻하게 입고 혹시 모르니깐 마스크도 쓰고”

엄마가 내가 먼저 집밖을 나가 본다니 기분이 좋은지 이렇게 말을 보챈다.



<처음 간 진주소싸움>

진양호 공원 입구에 있는 소싸움 경기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쯤 조금 지났을 때이다.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이 길가도 차들로 붐빈다. 민영이는 겨우 차를 세울 만한 공간에 간신히 주차를 하고서 같이 경기장으로 향하니 경기장 주변 우사에 소들이 꽤 많다. 어림짐작으로 싸움소라고 하면 웬지 좀 사납게 생기고, 여기저기에 상처도 많을 것 같았는데 마냥 순하게만 생긴 녀석들이 큰 눈망울을 꿈뻑 거리고 있는게 아닌가...

“오빠,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저기 화장실 간판 있다, 그래 다녀와 여기서 기다릴게”

생각만큼 소냄새가 안난다. 마스크를 벗었다. 여기저기 지나가는데 등에 백범이라고 세겨진 소한마리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백발에 일흔이 넘어 보이는 핏기가 없는 노인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주름진 손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소에게 김이 모락 모락 따뜻하게 데운 여물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궁금해진다.

“어르신, 소들은 어떤 목적과 의미로 싸우는 거죠?”

주름진 얼굴은 내 질문에 이렇다 저렇다 대답도 없이 껄껄 웃기만 한다. 대답이 없길래 발걸음을 떼는데 뒤에서 노인이 대답한다.

“지금 이 백범이는 4살이야, 4년을 애지중지 키웠지.... 이 녀 애비는 번개로 한때 유명했지 아암 전설이었지, 부부끼리도 천생연분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 소 사이에도 궁합이 맞아야 하는기라, 이 녀 눈빛이 젊은이를 쳐다 보는게 예사롭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괜히 물어봤나 억지로 소싸움 하는 것 아니냐는 것처럼 들렸다...

“그게 아니구요. 어르신, 저는 그냥.....”

“무릇 살아있는 것 중에 싸우지 않는게 있을까? 없을끼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싸우는기다. 자신과 싸우고, 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기다. 삶이 싸움인기다. 싸움속에서 크는기고 싸움을 통해 자라는기라. 싸움이 없으면 삶도 없는기라. 그래서 싸움 끝에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지면 죽는기라.”

내가 고민하던 뭔가가 말해주는 것 같아 조금 놀라기도 하고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라 다소 감탄스럽다.

그래서 노인옆에 앉았다.

"젊은이, 이 소 한번 멋지게 키워 볼 생각 없는가."

"네에~"

당황스럽다. 처음보는 낯선 사람이 자기 소를 사라는 것이....

"운동 선수도 코치나 트레이너를 잘 만나야 성공하고 잘 되는기라... 싸움소도 마찬가지로 인기라, 암만 튼실한 목덜미와 좋은 뿔과 체격을 갖추었다고 해도 트레이너가 부족하면 좋은 싸움소가 되지 못하는기라."

"왜, 저한테 이 말씀을 하세요 저 소 살돈 없는데에"

노인이 소를 사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두손을 가로 저으며 말했다.

"이 녀이 젊은이를 보는게 꼭 나를 쳐다보는 것하고 같은기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그러는데, 이 녀 눈빛을 보면 안다. 무슨 생각하는지 뭘 말하는지... 이 녀는 내 분신이고 자식인기라 이 녀 애비처럼... 내가 십오년전에 자동차 사고로 처자식 모두 잃고 낙담하고 자포자기 했을 때 이 녀 애비가 날 살렸다가"

"어떻게요"

호기심이 생긴다. 또한 동변상련이랄까 동정심도 발동한다.

"우연히 친구놈따라 도축장에 갔다가 이념 애비가 있는게 아니겠나. 몸도 좋고 뽀도 좋고 근데 눈빛이 다른 소랑은 다른거 있제, 그래가꼬 사서 자식삼아 낙으로 키워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념 등에 올라타고 산과 들을 누비며 다니면서...그러다 다른 싸움소랑 동네에서 싸움을 붙였는데 번개같이 이기는기라 상대소는 꽤나 잘 싸운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말이제. 그래서 느꼈제, 이념은 싸움을 해야만이 자기 존재를 느끼고 살아 갈수 있는 싸움소라고, 그래가꼬 이름도 번개라고 지었다이가"

"아~"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래도 먼저 어르신이 번개를 도축장에서 살린거네요"

"내는 이제 너무 늙어서 이념 훈련시키기가 버거워, 이념은 맨날 훈련을 적게 시켜 준다고 불만인가라, 허허"

소대가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신다.

"젊은이, 혹시 이념을 좋은 싸움소로 만들고 싶은 생각 없는가, 내가 죽고나면 이념이 도축장으로 끌려 갈 것 뻔한데 그것보다야 멋진 싸움소로 살게 해준다면 이념을 그냥 주지"

"생각해 볼 게요"

그래도 처음보는 사람한테 공짜로 소를 준다니 난감해서 얼부무리 듯이 대답하고서 일어선다. 아버지가 소를 키워봐서 알지만 꽤나 먹이주기도 그렇고 사육하는게 힘든 것을 안다. 그리고 다소 호감이 가지만 내몸도 좋지 않은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다.

저기 민영이가 나온다. 좀 급했나보다. 하기가 여자들은 화장실에 갔다하면 20~30분은 기본인 것 같다.

"오빠,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아냐 괜찮아"

<백범이에게 반하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

당신 없인 못살아 정말 ♪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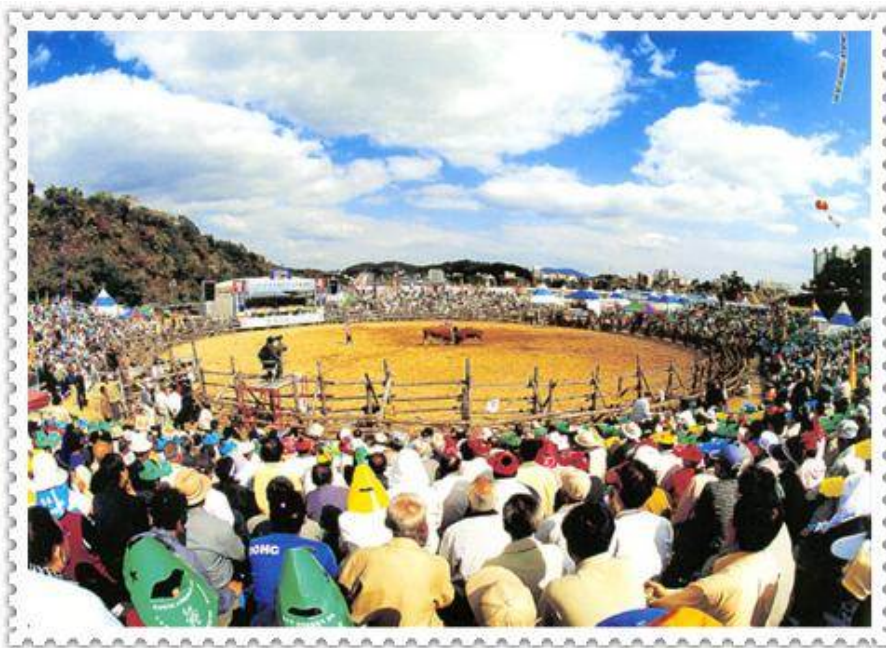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

내 사랑 당신이 짱입니다 ♪

장내에 들어서자 3류 가수가 메들리를 부르고 있다. 모래사장에는 흥에 겨웠는지 중절모를 쓴 할배가 신나게 춤을 춘다. 소싸움이 진행되고 잠시 휴식시간인가 보다. 먼저 들어온 소가 곧 싸우게 될 것이라는 걸 아는지 마치 전의를 불태우듯 우렁차게 울어대며 앞발을 굴러 사방으로 모래를 튀기고 모래 바닥에다 뺨을 부빈다.



“뿔이 큰 녀석이 힘이 센기라.”

“암만 그래도 모가지 굵은 녀석이 이긴다.”

“뿔카노, 불알 큰 녀석이 이긴다카이.”

어떤 할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있자니 웃음이 나온다. 처음보는 소싸움 대회, 드디어 시작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진지하게 보고 있다가 피식 웃음이 나왔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한 마리가 머리를 돌려 내빼는 것이다.

“하이고, 주인님, 저 녀석 꼬라지가 뿔서워예, 싸우기 싫어예, 오늘 그냥 집에 가입시더”

장내 해설가들의 입담이 재밌다.

“여기 처음 오신분 개중에는 소들을 싸움시키는 것이 동물학대라고 생각하는데 스페인 투우는 동물학대라고 할수 있지만 대한민국 싸움소들은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견희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우주들이요, 하루에 4끼를 여물을 따듯하게 데워서 정스럽게 주고요, 온갖 몸에 좋은 보약은 다 먹입니더, 일반 한우는 2~3년이면 도축장으로 끌려가지만 이소들은요, 15년을 살고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운동을 하는 소들이니가랴. 몸값만 치더라도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한 채는 나갑니더”
등에 데니스강이라고 쓰여진 소와 잠시 후 강적이라고 쓰여진 소가 들어온다.

“저기 데니스강 꼬라지를 보고 강적이 눈을 흘기면서 자리를 잡는다 그쵸”

“탁탁”

쇠뿔과 쇠뿔이 맞서며 나는 소리가 조금 떨어진 여기 관중석까지 생생히 들려온다.

“대가리를 지박은 녀석이 아플까요, 대가리를 맞은 녀석이 더 아플까요?”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핀데가 어딘지 아능교, 10월에는 설악산, 11월에는 지리산 텍도 없는기라, 바로 여긴기라, 소들이요 뿔을 맞대고 10분만 지나면 알록달록 조금씩 단풍이 물 들어가는데 이것보다 단풍이 아름다운대가 없는기라.”

“15분 30초 데니스 강 승”

일단 두 녀석이 머리를 맞대고 힘겨루기에 들어가면 뒤로 밀리지 않으려 뒷다리로 모래 바닥을 지차며 힘을 쓴다. 또한 지루한 힘겨루기가 30분을 넘길때도 있다. 그렇게 팽팽히 맞서다가 먼저 포기하는 녀석은 엉덩이를 보이며 줄행랑을 친다. 나이 어린소가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싸움 경험이 적은 쪽이 먼저 달아나곤 했다. 이긴소는 양전한 반면 진 녀석은 요란하게 울어대거나 분하다는 듯 경기장을 뛰어다니거나 울장을 들이 박으면서 난리를 치기도 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린

다.

‘꼭 사람 같네....’

또 다음 출전소들이 들어온다.

“뭉꼬 어린애들도 있는데 뭐하는 짓이고 우주들이요 얼릉 떼이쇼”

장내에는 웃음 바다를 이루었다. 처음엔 소들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놈이 다른놈 엉덩이를 쪽으로 가 냄새를 맞더니 그러다 올라타려고 하는게 아닌가. 재미난 광경이다.

얼마나 같이 호흡을 맞춰 왔던지 두 해설가가 TV의 전문 사회자 못지 않게 찰떡궁합처럼 재미있게 입담을 한다. 오히려 TV보다 나은 것 같다. 금방 3시간 정도가 흘러가 버렸다. 슬슬 해가 넘어 가려고 하니 추워지기도 하고 너무 오래앉아 있다 보니 기운도 빠지는 것 같아 민영이와 좌석에서 일어나 경기장 계단을 내려온다.



“이제 16강 마지막 경기로 녹두와 백범, 백범과 녹두경기가 있겠습니다. 녹두하면 2006년 의령배에서 준우승, 2007년 청도배에서 우승, 지금은 다소 부진해도 대단한 소인거죠.”

“그에 맞서는 백범, 백범은 지금 경력은 없어도 그 애비가 번개입니다.”

“번개하면 싸움소 중에서도 전설이죠 암요, 19승이라는 놀라운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소였죠.”

“그 피를 이어 16강에 올라온 백범, 신생소 치고는 대단합니다.”

나를 쳐다보는 눈망울이 뭔가를 말 하려는 것 같았던 바로 그 소다.

“민영아 우리 이 소싸움 마저 구경하고 가자.”

“출지 않겠어? 감기 걸리면 큰일인데 빨리 끝나겠지, 그래”

“10분 21초가 지나가디요, 녹두는 들치기가 장끼인데 전혀 백범한테 먹혀 들지가 않네요, 백범이가 기술은 없어도 잘 견디네요.”

“녹두가 뿔로 툭툭 치 봅니다, 육중한 800kg이 몸을 실어 치면 핵주먹 타이슨보다도 훨씬 강력하죠”

“오래가네 오빠, 이제 가자“

“잠시만 이거 마저 끝나는거 보고 가면 안될까?”

“그럼 내가 차에 가서 숨이불이랑 머플러라도 있음 가지고 올게”

“그럼 완전 고맙지 히히”



“20분 40초 경과, 백범 아주 잘 버티는데요 , 싸움소는 체급이 나누져 있죠, 600kg~660kg은 병종, 661kg~750kg은 을종, 751kg~820kg은 갑종, 그리고 821kg 이상은 특갑종, 지금 붙고 있는 녹두와 범이는 갑종에 속하죠”

“30분 10초 경과, 이렇게 소들이 맞대고 있으면 체력 소모가 엄청날 겁니다.”

“관중여러분! 이소들과 우주들에게요, 힘찬 함성과 뜨거운 박수를 쳐주세요”

관중들이 뜨겁게 박수갈채와 함성을 하자 소 옆에 서있는 우주와 아까 그 영감님이 때가 찌든 민방위 모자를 벗고서 답례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박수치신 분들은 하시는 일 잘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박수 안치신분들은 하시는일 되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시면 됩미더”

이제 거의 한시간이 되었다.

“야 임마들아, 빨리 끝내자 너것들이 끝내야 우리도 집에 갈 것 아이가”

해설자가 지켰는지 소들보고 투덜투덜댄다.

대단한 집념과 투혼이다. 두소들의 뒷배가 바람이 들었다 빠지는게 풍선처럼 들쭉 날쭉하다. 소싸움에서 무승부는 없다, 어느 한쪽이 꿈무늬를 빼고 등을 돌려 도망가야 승부가 난다.

한시간이 훌쩍넘겼을 때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는지 백범이가 혀를 빼물고 입에서 거품을 내민다. 그리고는 달아난다. 상대소도 힘이 너무 부쳤는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있을 뿐이다. 졌어도 대단한 승부근성이다. 힘과 기술 모두상대소에서 딸렸어도 투혼 하나만큼은 처음 보는 나에게조차 대단하게 와 닿았다.

<백범을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들다>

“민영아, 화장실 안갈래, 나 화장실 갈건데”

“그래, 나도 갈려든 참이었는데 그럼 다시 여기서 기다려”

경기장을 빠져나오니 한참을 관람했더니 오줌이 마렵다.

소변을 보고서 나오자 갑자기 아까 백범이가 궁금해졌다. 아까 우사를 다시 찾았다. 영감님이 소주를 소뿔 주변에다 뿌리고 약을 바르고 있었다.

“아쉽게 지긴 했지만 잘 싸우던데예”

말을 던졌지만 노인은 연신 소가 다친데가 없는지 이곳저곳을 보며 지극정성이다.

“경기에서 소가 뒷걸음을 치며 달아나도 ‘에이, 졌다’가 아닌기라, ‘우리소 괜찮나’ 인기라, 소도 안데이 지면 주인 마음 안건딜라꼬 고개 푹 숙이고 여물도 안먹는다. 이기면 주인한테 귀여움 받고 싶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기도 하고 모가지에 힘을 짹 준데이 ㅎㅎ”

별다른 상처가 없어 안심이 되는지 허허 웃으면서 얘기한다. 벌써 노인과 내가 많이 친해진 느낌이다. 아니, 노인이 나에게 허물없이 얘기하는 것 같다.

“니는 내따라 와가지고 어디갔다왔노 낫술하고 왔나”

“형님요, 내는 소가 싫단게 힘들게 뛰하는교, 하나밖에 없는 형님 혹시나 병이 도질 까봐 따라다니거 아닌가배”

다소 험상궂고 광대뼈가 두드러진 사내가 우사에 나타나자 분위기가 사뭇 심각해진다.

“어르신, 안녕히 계세요”

나는 그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백범이가 나를 쳐다본다. 지갑을 이리저리 뒤지다 회사 다닐 때 명함이 있다.

“어르신, 제 전화번호인데 며칠 생각해 보고 연락주세요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뭐꼬”

동생이라는 얼굴이 어리둥절하다는 듯 말하면서 명함을 받아 노인에게 건넨다.

“니는 알 것 없다, 트럭에 백범 태우고 집에 가자”

<차안에서>

“민영아 소들은 어떤 목표와 목적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싸움을 할까? 본능적으로 하는걸까? 아님 소주인한테서 사랑받기 위해서?”

“글쎄, 잘 모르겠네. 그냥 본능적이지 않아”

(창가를 바라본다) 무릇 살아 있는 것 중에 싸우지 않는게 있을까? 없을 것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싸울 것이다. 자신과 싸우고, 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운다. 삶은 싸움이다. 싸움속에서 크고 싸움을 통해 자란다. 싸움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그 노인의 말이 가슴에 다시 와 닿는다...

<부모님 설득>

“나 해보고 싶은게 있어예”

“뭔데”

수저를 놓고서 진지하게 얘기하자 입안에 반찬을 삼키고 아버지가 묻는다.

“싸움소 한번 키워 보고 싶어예”

아버지가 옆에 있는 엄마를 쳐다보며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듯이 피식 웃는다.

“소싸움 한번 가더만 맛들렸나, 소 기르는게 얼마나 힘든데 그라노, 몸도 성치 않으면서”

엄마가 말한다.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한 겁니더, 싸움소를 보면서 삶의 목표와 의욕이 생겼다니깐요.”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싸움소는 비싸더라고 하던데 눈여겨 본 소는 있나.”

“저번에 소싸움 대회에 갔을 때 어떤 할배가 당신이 죽을때가 다 됐다고 내보고 소 한번 키워 볼 생각 있음, 그제 준다고 했어예.”

아버지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그래, 한번 해봐라. 소마구야 예전에 쓰던걸로 쓰면 될끼고 그래도 답례로 그 영감님한테 얼마는 드려야 할끼다.”

아버지가 소를 많이 길러본 경험이 많아서일까, 매일 아무 낙없이 빈둥빈둥 대는 것 보아야 운동삼아 소라도 기르면 좋지 않나 싶어서일까, 그래도 생각보다 쉽게 승낙해 주셨다.

<영감님 임종>

투우협회에다 수소문 끝에 그 영감님의 집 전화번호를 알수 있었다.

“저 거기 백범이 키우는 어르신 집 아니간예”

“누구요”

영감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저번 진주 소싸움에서 잠깐 뵈었는데, 한번 뵈으면 싶어서요.”

“이제 이세상 사람 아니구만, 어제 임종을 하셨구만...”

일주일도 채 안됐는데 당황스럽다. 영감님이 하던 얘기가 떠오른다.

“무릇 살아있는 것중에 싸우지 않는게 있을까? 없을끼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싸우는기다. 자신과 싸우고, 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기다. 삶이 싸움인기다. 싸움속에서 크는기고 싸움을 통해 자라는기다. 싸움이 없으면 삶도 없는기다. 그래서 싸움 끝에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움일이 없어지면 죽는기다.”

빈소의 영좌 앞에 나아가 향로에 향불을 피우고, 오른손을 위로 하고서, 뒤로 약간 물러나서 재배(절 두번) 한뒤, 우측으로 돌아서서 상주께 맞절을 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개를 드니 진주 소싸움때 우사에서 봤던 다소 험상궂은 얼굴이다.

마루를 나와 마당 앞에 서니 몇몇의 동네 사람들이 전부이다. 저기 소마구에 백범이가 있다. 가까이 간다. 주인을 잃은걸 아는지 여물을 제대로 못 먹었는지 많이 여윈 것 같다.

“누구요, 한번도 못보던 얼굴인데.”

입안에 담배를 물고서 상주가 묻는다. 담배냄새가 역겹다.

“네~에, 저번 진주 소싸움에서 뵈는데예.”

“아아, 그렇구만, 저 고집불통 영감탱이 간암 말기인데 임마 데리고 소싸움하러 안갔는가봐, 그래가꼬 내가 속이 상해서 술을 안 먹었나.”

그때 이미지보다는 다소 온화해 보인다.

“안 그래도 내 젊은 양반한테 전화한번 줄려고 했제, 내는 소 키울 자신도 없고 안 키운다고 하니깐 영감쟁이가 전화해서 젊은 양반 주라고 하데, 이틀후에 포터 끌고 와서 저넌 데리고 가라, 그때쯤 우리도 이사 갈끼다”

<백범을 사다>

“뭐라카노고. 암만, 아주버님 말이라도 그렇지 저넌 팔면 몇백 아니 몇천은 받을킨 데 아무 핏줄도 아닌 남남한테 그냥 소를 준다고예.”

“그래도 그렇지, 형님이 자식같이 아끼던 녀인데 우리가 안 키운다고 도살장에 끌고 갈수는 없는거 아이가, 글구 형님이, 보험금도 우리한테 다 뒀는데 그걸로 충분한거 아이가”

“그래도 그렇지예, 그럼 이렇게 합시더, 전화해서 누가 1억에 사고 싶다고 하는데 8천에 준다고예.”

험상궂은 얼굴과 뚱뚱하게 보이는 아낙네와 마주 앉았다. 말없이 2천만원을 건넨다.

“6천만원은 축협에서 소이전 신고를 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더.”

백혈병 걸렸을 때 나온 진단금이다.

엄마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었다.

“이돈은 절대 못 갚다. 니 생명인기라, 적금해 두었다가 니 위급할 때 쓰야 되는 돈 인기라.”

그런데 엄마 몰래 깨버렸다. ‘백범이가 내생명인기라...’

“이건 형님이 소에 관해 쓴 내용이던데 한번 읽어보이쇼”

백범이를 포터에다 태우고 갈려는데 그 얼굴이 손때가 묻은 오래된 빨건 수첩을 건넨다.

포터에 타고서 수첩을 넘기시 들쳐 본다.

·가스불에 여물을 데우기보다는 참나무에 오래동안 끓이기, 변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콩·보리·배합사료·깨묵·쌀겨·참쌀·호박등의 비율방법과 대회를 앞두고는 십전대보탕과 보약을 먹이는 시간 등과 백범이의 행동습성들이 기록되어있다.

<소싸움에 관한 공부>

“행님아! 나왔다, 뭐하노”

“소싸움에 관한 정보 좀 얻으려고 인터넷 뒤지고 있다.”

방문을 빼꼼 열고서 말한다. 올해 초 한수원에 취직이 되어 저 멀리 울진에 발령이 나서 가끔 집에 온다. 취직이 되기 전에는 완전 말도 잘 듣고 죽는 시늉까지 하는 꼬봉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돈을 벌고 세상물정을 좀 아는지 가끔은 반항도 하고 짜증을 낼 때도 있다. 그래도 귀엽고 착한 동생이다.

“요즘 어깨가 결리고 쭈신다야 한번 시원하게 주물러 봐라?”

“응 알았어”

먼거리를 차를 몰고 왔는데도 얼굴을 보니 동생을 괜히 부러먹고 싶은 심통이 일어난다.

“행님아, 한번 투우협회에 찾아가서 백범이 등록도 하고 이리저리 소싸움에 관한 얘기도 들어 보고 오는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

열심히 어깨를 주무르고 두드린다.

“야, 소싸움에도 기술 많네. 우리 행님머리 뽕개지겠다,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겠네”

모니터 화면창에 소싸움기술들이 설명되어있다

‘들치기는 머리를 상대목에 걸어서 공격하는 것으로 싸움소의 노련미와 체력을 동시에 요하는 기술이다.

머리치기는 정면에서 상대소의 머리를 부딪치며 공격하는 기술로 소싸움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기본기술이다.

목치기는 상대소의 틱을 노려 목 부분을 공략하는 것으로 싸움소끼리의 펼치지면서 이어지는 공격기술이다.

빨치기는 빨을 좌우로 흔들어 상대의 빨을 치며 공격하는 기술로 직접적인 공격보다도 상대를 제압하며 다음 공격을 준비하도록 한다.

옆치기는 크게 옆에서 돌아 상대소의 옆구리쪽 배를 공격하는 기술로 경기를 마무리 할 때 쓰는 결정적인 공격기술이다.

빨걸기는 상대방의 빨을 걸어 누르거나 들어 올리는 공격으로 잘 단련된 빨을 이용하는 적극적인 공격기술이다.

밀치기는 온힘을 다해 서로 밀어 부치는 기본기술로 싸움소의 기초체력과 특유의 뚝심이 필요한 기술이다.

연타는 빨치기 뒤에 머리치기로 이어지는 연속 공격기술로 상대소에게 틱을 주지 않고 공격한다. 승률이 높은 기술이다.’

중얼중얼 읽어본다.

“행님아, 백범보고 빨걸기 한번 해봐 하고 하면 진짜 말 알아듣고 그렇게 하는 날이

올까?”

“그런날이 빨리 오겠지, 안그러겠나!”

<백범에게 여물주기>

“아주머니, 이 호박 얼마인인데예?”

“큰거는 2만원, 작은거는 만 5천원...”

“아따 저번보다 많이 올랐네, 이거 만 8천에 해 주이소”

“어메 무슨 소리하노, 그럼 남는거 하나도 없네디”

돌아서려는 나에게 만 9천원에 사가란다. 영감님이 백범에 대해 쓴 낡은 빨간 수첩대로 호박, 약재, 들깨, 배합사료, 콩 등을 사려니 이것저것 꽤 돈 나가는게 만만치 않다. 한번도 물건을 살 때 흥정을 해 본적도 없고 잘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몇 번 해보니 제법 어렵지 않게 흥정을 할수 있다.

백범과 같이 아침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오전에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서 도끼로 내리치어 장작을 캐고 오후에는 먹거리를 사러 가거나 타이어를 끌고 달리는 훈련을 하기도 한다. 하루일과의 거의가 백범과 지내는 시간이거나 백범을 위한 시간들로 채워져 버렸다. 가끔 민영이가 집에 놀러 오면 자기랑 많이 놀아 주지 않는다고 심통 부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싸움소들에게는 사료를 먹이지 않고 가마솥에 불을 때어 익힌 음식을 먹인다. 그 래야 위가 단단해지고 호흡이 순해져 건강하게 오래살게 된다고 한다.

가마솥의 여물이 오랫동안 잔잔한 장작불에 끓였더니 따스하게 김이 모락모락 난다. 백범이가 맛있게 다 먹는걸 보니 흐뭇하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이 맛있게 밥먹는 얼굴만 봐도 당신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소리인가보다. 오늘 하루해도 슬슬 넘어간다.

“옥아! 저녁 먹으러 오너라”

“네, 지금 갈게요”

나도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드디어 소싸움꾼이 되다>

오늘 아침도 백범과 함께 걷는다. 이제는

“백범아! 뛰자”

하면 고삐줄을 잡지 않아도 같이 뜀다. 신기하다 이젠 정말이지 내말을 알아 듣는다. 산길 여기저기에 매화와 개불알풀들이 피어있다. 이제 2월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목련이나 복사꽃이 피겠지...추워서 피는 꽃이 있고 더워야 피는 꽃이 있는게 자연의 섭리에 참 감탄과 탐복 할 수밖에 없다.

집에 오니 우편함에 서, 너개의 편지들이 들어있다. 그것 중에 진주투우협회 추진 위원회에서 보낸게 있다. 다소 긴장된다. 편지를 뜯고 내용을 읽어보니 토요상설경

기에 출전하라는 초대장이다. 드디어 싸움소 백범을 거느리는 나는 진짜 소싸움꾼이 된 것이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뿌듯함과 설렘이 솟아난다.



<처음으로 소싸움>

3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진주 소싸움 경기장까지 30분 거리를 백범이가 혹시나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노파심에 60km도 내지 않고 트럭을 몰고 왔다. 대진표에는 앞서 5번째 경기가 끝나면 치르는 걸로 되어 있다.

백범도 오늘 경기를 하는걸 아는지 비범한 눈빛이다. 앞으로 오후 1시부터 경기가 펼쳐지니 앞으로 4시간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집에서 미리 여러 가지 약재를 넣은 여물과 십전대보탕을 백범에게 먹이고 온게 잘한 것 같다. 백범 몸무게가 대략 800kg정도라 갑종에 출전한다. 먼저 백범이가 싸울 수 있는 담력도 키우고 장소도 익힐 겸 링 테두리내로 데리고 들어가니 비너 빨을 땅에 지 박으면서 모래 구덩이를 파헤친다. 그리고 우렁차게 울어대고서 앞발로 모래를 사방으로 튀긴다.

“그래 백범아, 오늘 우리 한번 멋지게 해보자”

아침이어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사람들이 있다. 동생이 먼저 차를 몰고 온 모양이다.

“행님아! 아버지, 엄마는 형수님이 전주서 내려오면 나중에 같이 온다더라.”

“그래, 우리 백범이 한번 봐 봐라 꽤 컨디션 괜찮아 보이지 않아?”

“응, 좋아 보이네, 이거 마셔봐라, 우리영가, 긴장하면 안되잖아, 그래서 내가 약국에서 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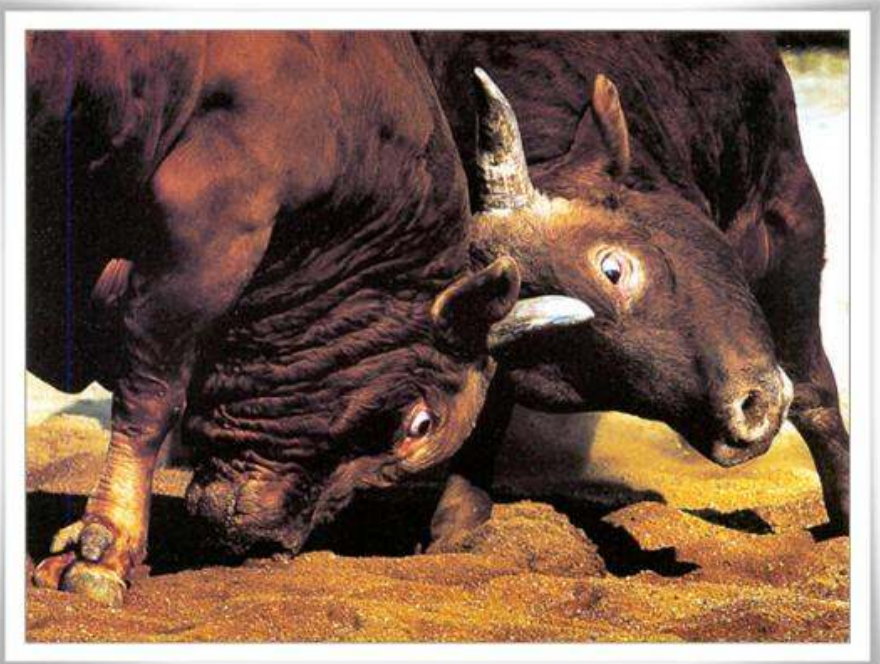
“고마우이 히히”

우황청심원이다. 형 생각하는 마음이 어지간하지 않다.

“다음 경기 백범 우주 이동욱님과 이소룡 우주 한승종님 경기 준비 해 주세요”
해설자 목소리가 마이크로 흘러 나온다. 장내입구로 들어서니

“오빠, 파이팅이야 잘해!”
민영이가 손을 마구 흔들며 말한다.

아까 꽤 관중객이 많았는데 모래사장내로 들어서니 눈앞에는 상대소하고 백범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냥 아무생각도 없어지고 멍하다. 고삐줄을 상대우주가 내 앞으로 와서 교차하자 두 소가 머리를 맞댄다. 뒤에서 “삐잇~삐잇~” 호루라기 소리가 난다. 상대우주가 코에서 고삐줄을 풀어주고 나도 천천히 한쪽으로 고삐줄을 당긴다.



“치박아라, 치박아뿌라, 가~자, 가자~”
상대 우주가 고향을 해댄다.

“백범아, 해보자, 아자자자~, 해보자, 가보자~”
나도 질세라 고향소리를 높여 본다.
스피커에서는 해설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관객석에서는 뭐라고 떠들어 대는 것 같지만 귀에는 상대우주의 소리와 두소가 뿔을 맞대고 나는 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다.

15분쯤 넘었을 때 이소룡이 갑자기 안되겠다 싶었는지 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백범이 조금 따라가는가 싶더니 그만둔다. 나는 순간적으로 양손을 뿔끗지고서 하늘 위

로 뺨이 버렸다. 이 짜릿함이란...옷을 벗고 춤이라도 추고 싶어졌다.

“백범아, 잘 했다. 참 잘했다.”

뿔사이에 소독되라고 소주를 조금 부어주고 연고를 바르면서 말한다. 백범이도 말하는 것 같다.

“저 잘했지예, 앞으로 더 잘할 자신 있어예.”

백범을 태운 트럭을 몰고 집으로 간다. 라디오에서 나미의 영원한 친구의 음악이 나온다.

파란하늘 댐도는 비둘기 날개처럼 ♪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가요 ♪

서로 다같이 웃으면서 밝은 내일의 ♪

꿈을 키우며 살아요 ♪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예! ♪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예! ♪

나는 노래에 따라 핸들에 손바닥을 두드리며 흥얼거린다. 집으로 오는 길이 가볍고 공기도 상쾌하다.

<다음 토요일 경기>

“이거, 대진표가 맞는 겁니까?”

“왜 뭔가 잘못 됐소.”

입술이 마르면서 타 들어간다. 경기가 늦게 시작할 줄 알고 호박, 들깨, 약재를 넣은 여물을 늦게 먹이고 온 것이다. 경기까지 채 2시간 정도 밖에 안 남아 있는 것이다.

“박치기 최진수 우주님과 백범 이동욱 우주님 출전 준비해 주세요.”

장내 아나운서 목소리가 대형 스피크에서 흘러 나온다.

“백범아! 미안해 내가 여물을 좀 더 일찍 먹였어야 했는데 숨이 가쁘거나 힘들면 고개를 돌리고 달아나라, 알것제.”

목덜미 주변을 만지면서 말했다. 상대소보다 먼저 모래사장에 들어섰다.

“지금 들어오는 박치기는 뿔이 하나입니다. 주 특기가 연타공격인데...예전에 뿔이 하나가 부러져 버렸습니다...소싸움에게는 뿔이 생명인데 말이죠...그래도 뿔 하나라도 연타 공격을 아주 잘 합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온다. 상대소 박치기의 뿔이 하나이다. 소의 고삐줄

을 서로 교차하자 백범과 박치기가 머리를 맞댄다. 그러자 바로 뒤에서 심판이 “빼잇~빼잇~” 호루라기를 불어댄다.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열, 열하나, 와! 연타공격 야~아! 여러분 보셨죠, 박치기 참 잘하는데요”

백범이 오른쪽 뿔 주변의 털이 조금씩 붉은 빛을 띄어간다. 뿔이 하나뿐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기술이 좋다. 박치기가 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공격해 온다. 그래도 백범은 곳곳이 이겨내는 것 같다.

“카 세라부라, 세리줘라, 짹 세리줘라”

상대우주가 박치기가 경기를 잘해 신이 났는지 고함을 해댄다. 여물을 늦게 먹인 것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걱정이 되어 호흡이 가빠 오는게 아닌지 싶어 자꾸만 백범의 배쪽에 신경이 간다.

“아!, 이번이 일어났습니다.”

박치기가 계속 공격해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엉덩이를 보이며 줄행랑을 친다. 순간 나는 백범에게 큰절을 하고 싶어졌다. 절을 하고 일어서니 백범이가 왼쪽 앞발로 모래를 튀긴다. 이것은 백범의 답례인사 방법인 것 같다.

<청도 대회 전날>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경적을 쉴새없이 해댄다. 내가 트럭을 60km도 채 달리지



않아서이다.

“야 호루라기 새끼야 죽을래? 도로 전세냈어?”

‘내가 백범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참아야지...’

운전자와 조수석에서 지나가면서 창문으로 손으로 욱 표시해대고 경적 을 울 리면서 지나가지만 씨익 웃는다.

원래는 집에서 청도 소싸움장까지는 2시간 거리인데 백범을 태우고는 60km이상을 달려 본적이 없다.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겨우 3시간 반만에야 도착했다. 소여물을 다시 데워 백범에게 먹이고 경기장 적응 훈련을 가지기 위해 울장 안으로 들어섰다. 이제 백범이는 몸무게가 920kg으로 불어나 특갑에 출전을 한다. 벌써 두명의 우주가 고삐줄을 잡고서 이리 저리 소를 데리고 다닌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낯도 익 어 친하게 인사도 건네고 가볍게 농담도 한다.

“백범 우주요, 오늘 저녁에 우사 앞에서 막걸리 한잔 걸친건데, 같이 한잔 하이쇼?”

“아~네, 뭐 그렇게 하죠”

아직은 술을 마시면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아 되도록 술자리는 피하고 싶지만 이젠 계속 봐야 될 사람들이고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라 뭐석해도 응했다.

“세계 소싸움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 한국소가 힘들게 결승전에 올라왔데이.

결승전에는 미국소, 영국소, 우리 한국소가 있었던기라.

이때 미국소가 말했대이 “난 시카고 불스닷컴...”

그러자 영국소가 하는말이 “난 버팔로닷컴...”

그러자 우리의 한국소가...하는 말~~“난 깜찍이 소지롱 ^^”

웃음이 나온다. 막걸리를 살짝 입술만 축이고 다시 내려놓자 대박 우주가 말한다.

“나는 11살 때부터 소파라 댕깁다이가 처음에는 소가 무섭고, 더럽고, 그 소싸움을 왜 하는지 몰랐는데...처음 키운소가 잘해가고 준우승까지 했다아이가, 그래가지고 미쳐서 24년을 따라 댕긴기라... 공부도 안하고 쪼금 후회는 되도 많이는 아이다.”

“내도 개는 싫은데 소는 좋다. 신사적인 싸움이잖아, 또 뭔가 열정도 있고 투혼도 있고...세계적으로 스페인 투우만큼이나 대한민국 소싸움도 콜로세움 같은 극장에서 소싸움이 하고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게끔 세계에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하모, 하모,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소싸움 축제로 커져야 하제”

텐트에서 자는데 새벽공기가 춥다. 발전기를 달고서 난로도 켜고 경기장판을 깔았는데도 춥다.

“추울텐데 이거 돌맹이 위에 발등을 얹고 자면 오래도록 따뜻할기라”

“네, 고맙습니다.”

내일 같이 맞불을 무광이 우주가 따스한 돌덩이를 박스종이에 싸 가지고 온 것이다. 경기장 내에서는 자기소를 응원하는 경쟁자이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서로 친구고, 동료고, 동반자인 것이다. 소만큼 우주만큼 정직한 경기, 정직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청도소싸움 축제에 앞서 소와 사람의 무사 안녕과 성공을 기원하는 제를 올린다.

“천년~의~ 맥을~ 이어오는~ 청~도~군~ 소~싸움~ 축제~를~ 하고자~ 하나이~ 다~”

하얀 도복에 검은 두건을 쓴 어르신이 글을 낭독한다. 가운데에 돼지 머리가 놓여져 있고 입에는 만원짜리가 두툼하게 물려져 있다. 그리고 딸기, 수박, 바나나들이 놓여져 있다. 여기저기 빈자리를 못 찾을 정도로 사람들로 붐비고 간간이 외국인들도 눈에 띈다.

막 백범이가 백야라는 싸움소를 이기고 돌아와, 우사 앞에서 연고를 바르고 오줌 습포로 찜질을 해준다.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 타박상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다. 담배를 쏴아 물고서 낮선 이가 다가온다. 담배연기가 역겹다. 백범에게도 앓종을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물고 있는 담배를 빼앗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서 신발밑창으로 뭉개버리고 싶지만 꼭 참는다.

“담배냄새가 역겨우니깐 다른데 가서 피우시겠습니까?”

낮선이가 뿌루퉁한 표정으로 담배를 신발바닥으로 비빈다.

“내가 싸움소를 키워 보려고 그라는데 이념이 참 괜찮아 보이는데 내한테 2억에 팔지 않겠수?”

“.....”

나는 피식 웃는다. 뒤돌아 서는 낮선이에게 건넨다.

“암만 돈이 좋고 궁해도 부모가 자식 파는 경우는 없는 기라요, 백범이는 내 자식인 기라...”



<결승전>

마지막 결승전이 용가리와 펼쳐진다. 싸움소를 13마리를 키운다는 이명훈 우주의 용가리가 작년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젊은거, 젊은거, 백범을 니가 노련미로 이겨내라이~”

옆에 우사에서 용가리 우주가 대가리를 쓰다듬고 볼티기 주변을 만지면서 말한다.



이제 결승전이다

“용가리 한번 보이소. 등에 용이 멋지게 그려져 있죠, 돌리고, 돌리고 야! 잘 돌린다. 내가 왕년에 챔피언도 많이 했는데 다시 최고 절정에 왔다가 까불지마라는 거죠.”

백범이가 용가리한테 뒤로 밀리기는 해도 잘 버텨낸다.



“카 잘한다, 세리줘라~ 치박아뿌라~”

상대우주는 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고향을 쳐댄다.

“잘하고 있어 그래, 백범아 넌 할수 있다, 가자~, 가보자~”

나도 백범 옆에서 고향을 쳐댄다.

“잠시 두소가 호흡을 가다듬나요, 용가리도 잘하고 백범이도 잘한다 그죠”

“이 결승전에서 어떤 소가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진소는 집에 갈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우주한테도 미안하고요”

“여러분! 아랫배에 힘을 꼭 주시고 힘찬 함성과 뜨거운 박수를 쳐 주세요”

여기저기서 박수와 함성 소리가 들려 인사를 하고 싶어도 백범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모님과 좋은 일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박수치신 분들은 건강에 좋을 것이고 함성 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밥 한끼 더 잡수시고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야, 이번엔 용가리가 들치기로 들어가나요, 야~아! 백범이가 완전 울장에 쳐받혀 네 다리가 하늘로 칩기 들려 자빠져 버리는데요.”

“오! 이게 웬일인가요 자빠지면 달아나기 바쁘데 쥘싸게 일어나 용가리한테 다시 달려드는데요. 차~차~차”

“야아! 여러분 이 멋진 광경에 힘찬 함성과 응원의 박수를 쳐 주세요”

웬만한 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면 달아나기 바쁘데 백범은 일어나자마자 상대소를 찾는게 아닌가 정말이지 감격과 감탄이 절로 나온다.



30분 20초 경과, 용가리가 ‘뭐 이런넘이 다 있냐’ 하는 식으로 혀바닥을 내뺏으면서 달아 나 버린다. 순간 하늘높이 뛰면서 오른손을 하늘 높이 번쩍 들었다.

‘백범아! 조금 있음 집에 우승 트로피 놓을 때가 없겠다야, 히히! 참 대견하고 믿음 직하다’



<뱀에게 물리다>

초가을이다. 이제 아침공기가 시원하다. 어김없이 오늘도 백범과 아침 운동을 하러 나선다. 항상 같은 발두령으로 해서 산길을 가려니 지겹기도 하고 해서 오늘만큼은 약간의 가시덤불을 헤집고 옛날 산길로 들어서 본다. 다소 잡초가 무성해도 훈련하기에 적당한 것 같다. 백범이 왜 안 가던 길로 가냐고 처음에는 약간 불만인 것처럼 몇 번 뒷걸음치더니 이내 그래도 순순히 응해준다.

“아~악”

왼쪽 발목에 무거운 통증이 온다. 뭔가가 재빨리 기어간다. 어렴풋이 등쪽에 다이나몬드 무늬가 좌우 교대로 이어져 있고 꼬리가 노란색인 것이 잡초사이로 사라져 버렸다.

“아부지, 독사한테 물린 것 같아예”

“어디고”

“매일 다니는 길이 아닌데... 언덕배기에 큰 소나무 있잖아예, 그 사이로 산길이 하나 있길래 그리로 쪽 들어왔는데”

“알았다. 움직이지 말고 있거라”

얼름 땀수건으로 장단지를 짹 짹 매고서 아부지에게 전화를 했다. 발목을 보니 꽤 크게 물린 자리에 피가 맺히고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다. 한손을 땅에 짚고 또 바위를 지지대 삼아 겨우 일어섰다. 그리고 백범등에 간신히 올라 탔다. 백범이가 조심조심 움직인다. 정신을 잃을듯 말듯 가까스로 산길을 내려왔다. 저기 아버지가 포터를 끌고 올라 오는게 보인다.

“다행히 피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네요, 초가을에 독이 강한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며칠 입원했다가 경과보고 퇴원하세요”

“.....”

의사가 말하고 나간다. 읍내에 있는 의료원인 것이다.

‘짜식, 기특한데 백범아! 고맙다’

<발목을 다치다>

"땅이 너무 질퍽질퍽한데예, 모래 좀 깔면 안되는교?"

"군청에다 연락했는데 당장 모래를 구할때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그냥 경기 합시다"

"....."

어제 비가 엄청 쏟아 부어었다. 경기장 여기 저기에 물이 고여있다.

"백범아, 가자~ 가자~ 한번 가보자"

소 엉덩이를 툭툭치면서 나도 이젠 능숙하고 어엿한 소싸움꾼이 되어 버렸다.

"새끼야, 치박아라, 치박아뿌라"

상대우주도 목소리에서 질세라, 고함을 쳐댄다.

21분 30초 막 지났을때

"뚝"

가슴이 철컹 내려 앉았다. 뭔가 잘못 되었다. 나는 양팔을 심판석 쪽으로 급하게 흔들고서 두소를 때려고 애를 썼다. 백범이가 밀치기를 하려고 하다 왼쪽 앞발이 모래 웅덩이에 빠져 채 빼지 못하고 부러져 버린 것 같다. 앞발이 뻔뻔하게 멍이 들고



통통 부어 오른다.

"괜찮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뼈는 아물겠지예"

"뼈는 금방 아물 것 같은데 채혈하고 오줌검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소가 조금 이상한데요"

수의사가 گا우똥 고개를 흔들면서 채혈과 오줌을 받고서 돌아간다.

"1주일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결과 나오는데로 연락주이쇼"

<백범이와 함께 하다>

"수의사님, 뭐라고예?"

"코에 땀이 적게 나고 복부가 조금 차는 것 같길래... 추측은 했지만...생각보다 창자가 많이 꼬이고 혈관이 터진 것 같네요...수술은 해보겠지만 상태가 조금 그렇네요... 급성 고창증으로 앞으로 복수가 차서 오래는 못살 것 같습니다."

급성고창증이란다. 백범이가 급성고창증이란다. 가슴한쪽이 딱 막혀 온다. 점점 그 답답함이 어지럽고 혼돈으로 바뀌더니, 마침내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고 불안하고 심장이 쿵당쿵당 뛴다. 내가 백혈병이라고 의사에게 들었을 때와 똑같다.

"백범 이넘아! 너도 참 미련하제. 왜이리, 내랑 똑같냐, 몸이 이정도이면 싸움하러 가지 말자고 뭐라고 표현이라도 하지 임마야?"

안타깝고 너무 애처롭다. 백범이가 나를 큰 눈으로 멀뚱멀뚱 쳐다본다. 이제서야 느낄 수 있다. 처음 진주경기장 우사에서 봤을 때 나를 바라 보던 눈빛을...

"저기에, 내는 목표도 생각도 없이 살아가다 도축장에 끌려가는 비육소는 되기 싫어

예, 이왕 살아가는거 싸움소로 멋지게 살고 싶어예, 저랑 멋지게 모래판을 누벼 봅시더”

“그래, 우리 모래판을 누벼구만, 멋지게, 참 멋지게...”

내 눈가에도 백범이의 큰 눈에도 이슬방울이 촉촉이 젖어서 흐른다.

암소를 바라본다. 이제 백범이의 새끼가 태어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한참을 암소를 바라보다 백범과 함께 아침구보를 했던 산길로 쪽 뺨쳐있는 언덕배기로 향한다. 가로 270cm × 세로 140cm의 초대형 판을 트럭과 포크레인을 이용해 운구를 해서 양지바른 자리에 묻었었다.



“백범아!

너에게서 참 많이 배웠다.

무한한 환희와 기쁨을 느꼈고,

너에게서 솟구치는 에너지를 얻었다.

또 너의 투지에 하염없는 감격과 감동을 받았다.“

백범 옆에 함께 누웠다.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내려 비친다. 아침햇살 때문에 눈이 부시다. 병원 통유리로 아침햇살이 곧바로 동공 속으로 들어온다.

"이동욱씨, 이제 골수이식 할거니깐 편안하게 마음먹어요!"

'그래, 백범아! 나에게 남은 마지막 결승전이구나! 우리 또 한번 멋지게 해보 자!' 두손을 불끈 쥐고서 씨익 웃는다.